

5/24/81



그대
당당한
여성

여성들만의 친밀감의 공간/문화적 연대감의 형성
여/성/주/간을 선포합니다 !

세상을 감싸안는 여성이 움/직/인/다
제12대 총여학생회

그대 당당한 여성!

5월 26일부터 5월 30일

여성공간의 확보!

여성임이 즐거운 사회를 위한
기획구조물 설치!

● 여성을 분노케하는 일상

도서관 앞에서 여성을 분노케하는 일상적인 문화들을 만나봅
니다.

주최/성정치위원회

● 개기기 공간

불상주변에 전시된 전시물들이 우리의 분노케 합니다. 우리
의 분노를 모아 표출시켜 봅시다.

주최/총여학생회

● 성폭력 박물관

팔정도 주변에서 여성임이 그다지 즐겁지않은 않은 이유를
고민해봅시다. 학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성폭력 유형과 실
례를 보여드립니다. 또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이 방관되어
온 현실을 느껴봅시다.

주최/총여학생회
주관/여성연대회의

● 제2회 동악성문화상 전시공간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에서 억압당해온 性을 나만의 방법으로
표현해보는 공간입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일상에 들어와 있
는 성차별 이데올로기를 찾아내 봅시다.

주최/총여학생회

여성임이 즐거운 사회를 위한
5일 만들기!

● 5월 26일 (월)

여/성/주/간 선포식

장소 불상앞
시간 3시

안토니아스 라인 상영

장소 중강당
시간 5시

함께 이야기하는 사람

서정은(11대 총여학생회장)

홍미리(12대 부총여학생회장)

안정원(성정치위원회 연구위원)

● 5월 27일 (화)

여성영화제-여성들간의 관계

장소 학림관 소강당
11시 연어알

3시 돌로레스 클레이본

6시 침묵에 대한 의문

● 5월 28일 (수)

포르노에 대한 열린강의

장소 명진관 104호
시간 5시

강사 변리나 (여성운동가)

● 5월 29일 (목)

여성들만의 체육대회

장소 만해광장
시간 11시~1시 연습하는 시간
2시 체육대회 시작

● 5월 30일 (금)

성문화상 시상식 및 강연회
- 여성문화를 이야기한다.

장소 학림관 소강당
시간 3시

강사 변영주(영화 감독)

여성임이 즐거운五日

12대 총여학생회장 김인영 /사학 95

동약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학우가 살아가는 데에 갑갑함을 느낀다면, 또한 그러한 문제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 원인을 찾아내는 과정은 충분히 지난할 수 있으며 찾아냈다 해도 해결이 간단한 문제라는 보장도 없다. 그 문제가 '여성'에서 시작했다면 더더욱. 문제는 질문(혹은 의문)으로 시작한다. 그것도 아주 간단한 '여성은 왜?'라는. 그 질문은 일상적인 경험에서 시작할 수 밖에 없으며 조금만 깊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고민한다면 여성이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 조금만 깊이 고민한다는 것은,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끄집어낸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 낯설고 따라서 어려운 작업이 되고 만다.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우리의 사고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며,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는 법을 20년 남짓 살아오는 과정에서 전혀 체득화 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작업의 첫발로 여러가지 단상들을 떠올린다. 동약의 주인이라고 하는 나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일들. 새터 이후로 계속된 술자리에서 가끔 안주거리로 등장하는 음담패설이라든가 체육대회에서 열심히 응원만 하던 모습이라든가 학점이 높아도 취직이 안되는 여자 선배들... 뿐만이 아니다. 사람은 여러가지 위치들을 갖기 마련이다. 집에서는 딸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는 가끔은 착하기도 한 딸이다. 한편 만원버스 안에서 아저씨 옆에는 서기 싫은, 캄캄한 밤길을 걷는 것이 두렵기만 한 여성이라 이쯤지어진 사람이기도 하다.

이런 단상들 속에서 어느 사이엔가 움츠러들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언제나 자신만만하게 세상을 살아나가고자 했던 다짐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단지 세상이 너무 팍팍해서라고 자신을 위로하기엔 뭔가 허전하다. '약한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 라고 했던가... 약자라고 해서 움츠러드는 것은 숨이 막힌다. 약하면 어쩔까. 약한자도 즐거울 수 있는 세상이 진짜 좋은 세상이지 않은가.

잠시 즐거운 세상을 꿈꿔 본다. 숨겨진 일상을 끄집어내고 여성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그간의 갑갑함을 풀어낼 수 있는 공간이라면 좋겠다.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면서 스스로 당당해지는 세상. 단 5일 만이라도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

CONTENTS

여성주간일정

개최의 변

여성임이 즐거운五日

공간

여성이 있는 공간

성폭력박물관

여성을 분노케하는 일상

행사소개

여성주간을 신/포/한/대

초대영화 '안토니아스 라인'

영화제

포르노에 대한 열린강의

체육대회

여성문화를 이야기한다

성문화상 작품소개

발행인 김인영

연락처 260-3614

발행처 동국대학교 12대 총여학생회

통신 ID (Hitel) DGUCHW

여성임이 즐거운五日

12대 총여학생회장 김인영 /사학 95

동약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학우가 살아가는 데에 갑갑함을 느낀다면, 또한 그러한 문제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 원인을 찾아내는 과정은 충분히 지난할 수 있으며 찾아냈다 해도 해결이 간단한 문제라는 보장도 없다. 그 문제가 '여성'에서 시작했다면 더더욱. 문제는 질문(혹은 의문)으로 시작한다. 그것도 아주 간단한 '여성은 왜?'라는. 그 질문은 일상적인 경험에서 시작할 수 밖에 없으며 조금만 깊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고민한다면 여성이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 조금만 깊이 고민한다는 것은,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끄집어낸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 낯설고 따라서 어려운 작업이 되고 만다.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우리의 사고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며,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는 법을 20년 남짓 살아오는 과정에서 전혀 체득화 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 작업의 첫발로 여러가지 단상들을 떠올린다. 동약의 주인이라고 하는 나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일들. 새터 이후로 계속된 술자리에서 가끔 안주거리로 등장하는 음담패설이라든가 체육대회에서 열심히 응원만 하던 모습이라든가 학점이 높아도 취직이 안되는 여자 선배들... 뿐만이 아니다. 사람은 여러가지 위치들을 갖기 마련이다. 집에서는 딸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는 가끔은 착하기도 한 딸이다. 한편 만원버스 안에서 아저씨 옆에는 서기 싫은, 캄캄한 밤길을 걷는 것이 두렵기만 한 여성이라 이쯤지어진 사람이기도 하다.

이런 단상들 속에서 어느 사이엔가 움츠러들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언제나 자신만만하게 세상을 살아나가고자 했던 다짐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단지 세상이 너무 팍팍해서라고 자신을 위로하기엔 뭔가 허전하다. '약한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 라고 했던가... 약자라고 해서 움츠러드는 것은 숨이 막힌다. 약하면 어떤가. 약한자도 즐거울 수 있는 세상이 진짜 좋은 세상이지 않은가.

잠시 즐거운 세상을 꿈꿔 본다. 숨겨진 일상을 끄집어내고 여성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그간의 갑갑함을 풀어낼 수 있는 공간이라면 좋겠다.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면서 스스로 당당해지는 세상. 단 5일 만이라도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

CONTENTS

여성주간일정

개최의 변

공간

행사소개

성문화상 작품소개

여성임이 즐거운五日

여성이 있는 공간

성폭력박물관

여성을 분노케하는 일상

여성주간을 신/포/한/대!

초대영화 '안토니아스 라인'

영화제

포르노에 대한 열린강의

체육대회

여성문화를 이야기한다

발행인 김인영

연락처 260-3614

발행처 동국대학교 12대 총여학생회

통신 ID (Hitel) DGUCHW

여성이 있는 공간

우리학교 고시원은 법대생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어찌되었건 들어가 공부할 수 없으니 나에게겐 소용이 없다.

친구들과 함께한 술자리. 하지만 마지막엔 항상 남자들 끼리만 3차를 간다. 수업시간에 교수님은 항상 '우리 학생들은' 하면서 남학생들에 눈을 맞춰 여학생은 그 강의실에 없다는 듯이 얘기 하신다. 왜 난 그 속에 포함될 수 없는거지? 응원소리가 높은 농구장에선 남자농구가 한창이다. 난 열심히 응원만 한다.

공간이라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보통 그 공간이 누구의 것인가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공간이 정말 자신의 것일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모든 곳이 나의 공간이다. 내가 있는 곳은 모두 나의 공간이다' 물론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동약이라는 공간을 통해 우리의 문제제기를 이어가 보고 그 중에서도 여성의 공간을 사고해 보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공간에 대한 답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자신에게 반문해 보자. 정말 내가 살고 있는 동약은 전적으로 나의 공간인가? 내가 수업받는 강의실, 친구들과 뛰노는 운동장, 잔디밭, 동아리방, 학회실, 건물밖 길거리... 우리는 이러한 공간들에서 주인인가 손님인가. 마음 놓고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공간이 여성에게 과연 얼마나 존재하는가? 이러한 혼돈은 잠시 뒤로 하고 온전히 여성만의 공간이라고 사고되는 곳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동약을 둘러보면 여성만의 공간은 화장실, 여학생휴게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다. 수를 따져 보니 참으로 적다. 그럼 다른 공간들에 대한 생각을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동약의 많은 공간은 대부분 공용공간인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남성들의 공간이다. 여성이 완전히 동화되지 못하고 배제된다는 느낌을 받는 공간이라면 그 공간의 주인은 그 사람이 아니다. 실제 거의 모든 공간에 있는 듯 하지만 그 안에서 온전히 주인이지 못하며 자신의 공간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남성들에 의해 그 공간의 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서 여성은 그저 손님일 뿐일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여성을 타자화 시키는 공간이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생각해 보자. 우리의 일상은 무수한 이미지로 조작되어 있다. 나의 주변은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힘들게 만든다. 우리가 보는 TV나 영화, 소설, 잡지, 모든 매체 속에선 여자들은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보이도록 살고 싶어하는 존재이다. 여자는 시집 잘가기 위해서 예뻐져야 하고, 남자에게 성적 매력이 있어보여야 하며, 경제적 능력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 이처럼 여성에게 요구되는 것들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들이다. 그러나 대부분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사회으로 여러 기제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입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 느끼는 것들을 제대로 응시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어떤 사람이 어느 공간에 속한다는 것은 활동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일 수 있다. 이는 나의 신체가 머무르며 그 공간이 나 자신의 것임을 인지하는 물리적·정신적 공간 모두를 포함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의미의 공간 속에서 소외되는 집단들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그 집단이 권력을 가진 집단이나 아니냐에 따라 소수(여기서의 소수란 수가 적음을 의미하지만은 않는다)는 소외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소외된 집단들중에서도 가장 커다란 집단은 세상의 반인 여성일 것이다. 다양한 권력 집단내에서 여성은 일상적으로 억압받지만, 이 사실에 대한 권력집단의 변명은 항상 그렇듯이 여성이 수적으로 소수라는 것이다.

우리는 왜 이러한 공간의 문제를 사고할 수 밖에 없는가? 공간이라는 것은 이미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문화와 경제, 장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어느 누구의 공간이 되는 것은 권력의 개입을 의미한다. 이 안에는 '정치'라는 것이 들어있고 이로 인해 '정치적인 것'과 다른 것은 모두 '비정치적인 것' 하나로 치부되고 차단되어 버린다. 이처럼 공간은 정치적 인식과 함께 한다. 어원적으 따져봐도 정치라는 말은 공간을 의미하는 폴리스(polis)라는 말에서 온 것이다. 그리하여 공간은 우리를 정치적인 것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여성을 얘기할 때 공간이라는 것을 이야기 하여야 하는지 좀더 명확히 이야기 하여야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간이 갖고 있는 정치적 성격으로 인하여 권력을 갖지 못한 집단은 그 공간에서 배제될 수 밖에 없음을 보았다. 그러면 이러한 공간을 우리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자. 현실적으로 여성이 수 없이 많은 공간들 속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여성에 대한 통제를 저항으로서 이끌어 갈 수 있는 공간"으로 재해석한다면 여성이 주인되는 공간을 사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새로운 공간의 창출을 이야기 한다. 여성임을 자각하고 자족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자율적인 참여 공간을 통해 대체공간을 자신의 경험으로 재인식하고, 문화적 연대감을 통한 수평적 공간의 재창출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중·여**

성폭력박물관

1. 학내 성폭력박물관

작년, 유치원장이 원아 100여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사건, 11살 짜리 소녀가장을 마을주던 14명이 23차례에 걸쳐 성폭행하여 피해자가 음독자살을 기도한 사례, 그리고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성폭력 사례들... 그래서 영예롭게도 세계 성폭력 국가 2위에 링크된 한국. 이러한 현실을 반증이라도 하듯 학내 성폭력 사례들 또한 끊이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발생되고 있으며, 학원은 점점 성폭력 박물관이 되어가고 있다.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 2차 회의 문건 中

대학이라는 진보지식인의 공간에 들어와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이전의 사회보다 무엇이 진보이고 누가 지식인인지에 대하여 하나의 물음표를 던진다. 최근 들어 국민대학교 교수 대학원생 성폭력사건, 상원대학교 학내 강간사건, 서울대학교 교수 대학원생 성폭력사건 등 학내 성폭력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하나씩 이슈화되는 사건들은 비단 현 시기가 불안한 시기여서 혹은 신세대들이 원래 참을성이 없어서라고 단정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 학내 성폭력의 문제는 하루 이들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하면서도 지속적인 성폭력이 우리의 선택의 선택의 선택... 그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 다만 그때는 모두가 침묵했던 것이고 지금은 소수나마 사건을 고발한다는 것이 다들 뿐이다. 학내 성폭력사건을 바라보는 이들의 시선도 다양하다. 국민대학교 강간사건의 경우, 교수의 도덕성을 문제시하는 시각,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여성의 인권권을 유린하는 것에 분노하는 페미니스트의 시각, 학내 자치권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 사건보다는 피해자의 순결여부를 따지고 드는 시각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다양하다.

이러한 시각들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과연 학내 성폭력은 왜 발생하는가, 나아가 학내 성폭력근절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기만적인 진보지식의 공간이라고 하는 대학에 대한 새로 눈뜸이 바로 그것이다.

성폭력의 원인 규명 또한 '가해자의 도덕성의 문제'나 '피해자의 무대책성'의 문제로 환원되어서는 안되며, 남성 중심적인 사회구조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공간으로서 대학 사회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대학사회는 흔히 '진보적 지식인'이라는 허울좋은 이름에 가려져 성폭력의 심각성이 많이 간과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만약 성폭력이 개인의 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한다면 진보 지식공간인 대학 안에서는 발생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대학생은 20여 년의 제도교육을 받아오면서 가부장적인 권력을 배워왔기에, 교육·환경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 인간으로서, 사회구조를 그대로 받아안고 '진보'의 범위에서 '성차별·성억압'의 부분은 배제하며, 따라서 상품화되고 하위적인 여성의 지위를 그대로 받아안아 "성이라는 수단으로 여성을 지배해도 된다"라는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지금부터는 이/성/주/간 행사 기간 중에 설치되는 「성폭력 박물관」에 전시될 여러 가지의 성폭력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다. 앞서 언급했듯이 학문의 상아탑이라 불리는 대학에서는 성폭력 관련 학칙이 제정되는 것이 그렇게도 불명예스러운 일인지에 대해 더불어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 동국대학교내에서의 여러 사건

1. <新 강간각본>

수업시간에 교수에 의해 벌어지는 성폭력

아래 경우는 교수가 교과 강의시간에 말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사실일까라는 의문들을 정도로 명백히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성폭력이다, 이어 '사회가 여성의 강간에 대해 물이해적임을 이용하라'라는 신강간각본을 제시한 경우이다. 이 사회는 여성의 몸에 대해 '정조에 관한 법' 이상의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강간의 경우 "여자가 원래 그런 애였네."라는 말은 강간이라는 모든 상황증거를 무색하게 만든다. 강간 신고전수와 그 해결전수를 보았을 때 그 수치는 지극히 미미하다. 왜냐면 그것이 강간이나 아니냐를 따지고 때 대다수의 피해 여성은 패소한다.

>모태학 모과 강의시간 강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강간하고싶으면 여자 뒤(등)에 벽들을 넣어놓고 해라. 그러면 아프니까 자기가 알아서 벽들을 치운다. 그러면 그것이 법정에 가서는 여자가 원했다. 자발적이었던다는 증거가 된다."

2 <여자 셋 다 드릴께요>

새내기 새로 배움터 모꼬지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의 성폭력

새내기들이 선택들이 준비한 새로 배움터에 와서 어색하고 두근거리는 느낌으로 청평 콘도에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새내기들을 맞이하는 축하공연이 진행되었는데 다른 아닌 백상원단의 율동공연이었다. 야구장이나 축구장 같은데서 응원하는 치어리더들이 하는 율동인데 정말 경쾌하고 신나고 힘차다. 문제는 그 율동에 있는 것이 물론 아니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응원단장인지 하는 남학우가 새내기들에게 이런 언사를 했다. "여러분, 저희 연습 많이 했는데, 응원 잘해주셔야 해요. 응원 잘해주면 여기 뒤에 있는 여자 셋 다 드릴께요."라고 더욱이 주목할 것은, 새터가 이 분해서 이루어졌는데 처음 1진의 공연에서는 '그래 실연일거야.'라고도 볼 수 있었지만 2진의 공연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볼 때 계획된 발언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공연이 끝나고 총여학생회가 머무는 숙소로 친구들이 찾아왔다. 응원단의 발언에 대해 기분 나쁘다는 의사를 전해온 사람들이었다. 정식적인 신고 접수는 아니었지만 총여학생회는 이것이 명백히 공연자리에 있던 새내기들에 대한 성폭력이라고 단정하고 총여학생회 계간지 '동아여성'에 게재할 예정이다.

3. <농활의 의의를 살리자!>

96년 7월 여름농활에서 벌어진 강간미수사건

여름 농활을 다니온 당시 3학년 문과대 한 여학우가 그 지역 청년에게 강간을 당할뻔한 일이 있었다. 마침 여학우는 성폭력신고센터에서 지킴이 교육을 받고 상담자원봉사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사과문을 받는 등 차분히 일을 해결해 갔다. 주목할 것은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다. '강간을 당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름이 알려지면 너한테 양종다"이 일이 알려지면 농활의 의의가 상하지 않겠느냐'등등. 꼭 남자의 성기가 전 내에 삽입되어야 그 여성은 공포를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는 것일까? 그리고 내년에 또다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건을 명확하게 해결하는 것이 농활의 의의를 윤곽에 세울 수 있는 기반이 아닐까?

● 타대학교 학내 성폭력사례

<국민대학교 송진호 교수에 의한 대학원생 강간사건>

이 사건은 교수와 학생간에 일어난 강간사건이라는 점에서 남성권력과 교수라는 지위가 갖는 권력이 결합되어 나타난 전형적인 성폭력사례라고 보여진다. 이미 송교수는 교수라는 권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고립시켰으며, 학교측도 이에 합세하여 학내의 강간사건 공론화를 지속적으로 방해했다. 국민대학교 학내의 여론이 그다지 거세게 일고 있지는 않지만 3월부터 시작한 사건대응이 성과가 있는 듯 현재 송교수는 자진 사퇴를 했다.

국민대학교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 학교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라는 고민을 했었다. 가장 잘못 인식된 성격본 중의 하나는 여관까지 따라갔으니 여자도 원한 거 아니냐, 원래 그런 애 아니냐? 라는 것이다. 이 부분을 설득시켜나가는데 있어서도 남성의 코드가 아니라 여성들의 언어코드가 존재해서 언어로 표현하고 설득시킬 수 있으면 다행이런만 아쉽게도 우리는 여성의 이해 코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 자신조차도 '화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언어코드를 문제삼기보다는 통계치를 예로 들어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 성폭력 상담소의 선생님들께 질의해 보니 국민대 사건이 그야말로 전형적인 강간각본에 딱 들어맞는 사건이고 거의 대부분의 여성이 상대 남성이 술에 취한 경우 여관까지 데려다달라라는 부탁이라던가, 이번 경우와 같이 "존경한다면 같이 들어가서 학업에 관한 이야기를 반세 해보자"라는 이야기로 제안할 경우에 100이면 100 대부분의 여성이 '설마.'라는 마음으로 따라 간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통계치를 보고 바보같다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틀린 것이, 여성으로 하여금 성에 대해 무지(순진)하도록 교육한 이 사회에게 그 첫 번째 책임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국민대학교에서는 강간사건 자체보다는 "여자가 원래 그런 애였네"라는 소문이 더욱 가쉽거리라고 한다. 왜 강간을 당했다는 것보다 강간당한 여자에 대한 순결의 유무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일까. 여성의 성은 어머니와 창녀, 이 두가지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II.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박물관

1995년 유엔경제 사회 이사회 인권위원회에 제출되었던 [여성에 대한 폭력과 그것의 원인, 결과에 관해 보고관이 제출한 예비보고서 中 4C 국가에 의해서 행해지거나 묵인되는 폭력]에 적혀있는 내용을 참조해 보자.

248. 여성에 대한 관할기관의 폭력은 광범위하며 심각한 현상이다. 경찰이나 군관리가 명확치않은 불평등한 상황에서 취하는 권력남용은 관련인물이 비난을 받지 않는 사실과 함께 관할기관의 폭력이 조장되고 성행하게 만든다. —(중략)—국민을 억압하는데 군사력을 동원하는 정부는 군관리 하에 행해지는 폭력행위에 대해 무반응을 보인다.

271. (a) 1971년 방글라데시 전쟁시 이십만 명의 여자와 소녀들이 파키스탄군에 의해 강간을 당한 것으로 계산된다. (b) 1992년 한해동안 잠무와 캐시미르의 인도 보안군에의해 운간당한 여성은 882 명으로 추산된다. 194캐시미르 민병대원들은 무장투쟁의 도구로 강간을 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c) 페루에서는 페루공산당과 정부의 전복 타도군과의 지속적인 무장투쟁중 보안군이 여성강간을 통상적으로 했다. (d) 1992년 미얀마에서는 로한가 회교도마을에서 남자들을 강제노동시킨 후 정부군이 여성을 강간했다.

273. 50년이 지나 전 일본군을 위한 한국인 위안부 출신 여성들이 처음으로 침묵을 깨고 그들의 경험을 밝혔다. 주로 한국인으로 구성된 20만에 달하는 아시아 여성들이 위안소에서 일본군 명령하에 강제 납치되어 위안부 역할을 강요당해 왔었다.

278. 전쟁시 발생하는 강간은 성취행위라기 보다는 피해자에게 모욕감과 상실감을 줌으로서 만족을 얻는 공격적 행위라는 의미에서 성격이 틀리다고 할 수 있다....

1996년 8월 범민족 대회를 진행하려고 했던 학생들이 모든 공급이 차단된 상태로 연세대에 고립되고 정권의 탄압이 가혹하게 자행되었다. 경찰의 침탈과 최루액, 형광액, 두하, 페퍼포그나 지랄탄이 발포되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그리고...학생들이 연행되었고 여학우들은 구타와는 또 다르게 아프지는 않지만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성추행을 당했다. 하지만 86년 권인숙 성고문 사건이 그러했듯이 여론은 강간범의 편이었다.

전부 고개를 숙이고 손을 꼭지 끼서 머리위에 올리고 오리걸음으로 계단까지 갔는데 가는 도중에도 전부 죽어버리겠다며 구타가 계속 되었습니다. 6층부터 내려오는데 계속 내려다가 4층쯤에서 전부 꿇어 앉히고 기자들이 있으니까 때리지 말라고 대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때리는게 좀 덜하고 무릎꿇고 앉아 있다가 조금후에 내려갔는데 손을 너무 많이 맞아서 손을 만지면서 허리를 약간 뺐었는데 그 때 전경들이 곤봉으로 배를 때리고 가슴을 쥐고 내려갈 때 뒤에서 손이 올라와서 음부쪽을 만졌고 그대 사람들에게 밀려서 내려가느라고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내려가면서 계속적인 구타가 이어지면서 여학우들에게는 '이 빨갱이 년들 집에서 밭이나 캐쳐먹지'하면서 욕을 해 댔습니다.

여성을 분노케 하는 일상

성정치위원장 96 신순옥

이 공간 속에 전시된 것은 쉽게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남성중심 사회의 일상 속에서 획득되어진 의미들을 한번 여성의 입장에서 바라보자. 소위 '성인잡지'라고 불리는 곳에서 오려낸 여성의 사진의 전시되어 있다. 아마도 많은 학우들이 '이렇게 야한 걸 어떻게 공개적으로 전시를 할 수 있을까?'하고 생각할 거라는 예상이 든다. 그러나 남성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사진은 아주 오래전 중고등학교 시절 보았던,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유치한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군! 전부해! 라고 말할 런지도 모른다. 모두가 알아쳐버릴 정도로 전부해져 버린 '성적 대상화'를 일부 여성의 문제를 고발한다거나, 이리이리한 퇴폐적인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는 식의 유치한 생각은 저쪽으로 밀고, 그 사진들의 의미를 우리의 일상과 연결시켜보자.

대부분의 소위 성인잡지라고 불리는 것 속에서 여성은 큰 가슴을 자랑하고, 엉덩이와 음부를 카메라를 향해 드러내고 있다. 그럼, 그 여성은 누구의 시선으로 그려지고 있는가? 도대체 누구의 즐거움을 위해 그 여성들은 발기된 가슴을 움켜잡고, 기쁜 표정을 짓고 있는가? 공간 속에 전시된 한 잡지 표지를 보면 성인 남성용이라는 말이 적혀 있다. 그렇다면 잡지속의 여성들은 남성의 즐거움을 위해 포즈를 취하기를 요구받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잡지 속의 여성은 남성의 시선으로 그려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잡지 속의 여성만 남성의 시선으로 그려지고 있는가? 우리의 일상은 그들의 모습과 전혀다른 차원인가? 그럼, 여성들이 바라보는 시선을 보자. 많은 여성들이 잡지 속의 여성들을 보고, 자신과는 상관없는 다른 세계의 여성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을 비교우위에 둘으로써 그 여성과의 차별화를 피하고 있는 것이다. 묻고 싶은 건 정말 그 잡지 속의 여성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가? 우리의 일상은 정말 한 인간으로써 대우받고, 존중받으며 영위되고 있는가?

여성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란 것을 하나씩 해부해보자. 여성이 정말 한 인간으로써 위치를 가지고 있다면 왜 여성들은 발길을 걸을때 남성이 뒤따라오면 폭력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강간을 떠올릴까? 왜 우리는 담배 하나를 피는 것도 혹은 앉는 것도 수 많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합리화하는 과정을 가져야하는가? 여성들 대부분은 다이어트를 강박관념으로 가지고 있다. 다이어트는 단지 살을 빼기 위한 것인가? 정말? 솔직히 이야기 해보자. 살을 빼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누구에게로부터 오고 있는지. 우리는 계속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이 아니라고 말해왔다. 그건 여성이 자신의 육체를 끊임없이 남성의 시선으로 검열하고, 인정받기위해 처절하게 관리를 한다. 대부분의 여성은 자신의 성기를 본 적이 없다. 왜? 자신의 성기인데 왜 못 보는가? 혹시 언젠가 어떤 남성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보고 싶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성의 시선을 의식하도록 길들여져 왔다. 우리가 속한 모든 일상 속에서, 결국 대학안에서의 여성과 잡지 속의 여성은 별반 다를 바 없는 위치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단지 아름다워지고 싶다는데, 성에 관련된 것은 본능의 산물이라는 웃기지도 않은 말로 우리의 일상을 이야기 하지는 말자. 여성이 아름다워지고 싶은 마음을 처절하도록 강하게 갖게 한 이 사회구조, 바로 남성 중심사회에 눈을 돌리고, 자신이 서있는 현실을 직면하자. 그리고 남성들은 자신의 시선이 얼마나 여성을 대상화, 타자화 시키고 있는지 스스로를 분석해보자.

오늘, 그대는 누구의 시선으로 화장을 하고, 옷을 입었는가?

588이나 가라. 이런 년들은 일본이나 다른 나라로 다 수출해버려야 한다/니네가 뭐 김정일 기쁨조냐 북한으로 보내라/니네 사수대하고 날자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밤새 뭐 했냐 사수대한테 니네 몸대주고 살았지?/고년을 털 참 많게 생겼다/야! 이 씨발년들아 니네 위안부 노릇하려고 왔냐/들 한번 던진 애들한테 한번씩 빨아줬냐.

- 피해자 인터뷰 녹취록 중에서 -

앞서 언급되었듯이 여기서 벌어진 성추행은 성적행위라기 보다는 피해자에게 모욕감과 상실감을 주기 위하여 성이라는 수단을 이용한 것이다. 여성에게 성은 금기의 영역이기 에 무지하도록 교육받았다. 또한 21세기를 바라보는 지금도 순결하지 않으면 인생이 끝날 것이라는 인식은 그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잃지않고 있다. 여성에게 가장 효과적인 모욕을 주는 방법이 성이 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경찰은 연세대에 있던 운동권 여학생들의 기를 꺾어놓는데 성공했다. 어떠한 저항도 허락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된 이번 성폭행은 아주 성공적인 전략이었다.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은 연세대 사태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앞서 말한 86년 부천시 성고문사건을 전후해서 청량리 경찰서의 여대생 성추행사건, 5.3인천시위 연행자에 대한 성고문 사건, 95년 옷이 벗겨진채로 연행된 철거대책위원장 문연희씨 사건, 97년 병원노련 압수수색과정에서 일어난 성추행사건 등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은 '불황(근절)'이라는 것도 없는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다. 50년이 지나 중연대에 서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를 기억하자. 전쟁 중에 저항할 아무런 것도 가지지 못한 채 일본군 성노예로서의 기억을 가지고 살아오신 그 분들을 말이다. 이것들은 하나 분리된 사건의 나열이 아니다. 손이 닿아도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성을 정복하는 남성권력집단의 극단적인 실례인 것이다.

III. 자, 이제 정리를 해보자.

여자는 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성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일상은 물론이고 전쟁에서와 같이 급박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여성을 바라보는 남성의 시선은 「여성=성적이미지」의 기반을 잃지 않는다.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일본군이 조선인 처녀를 위안부로 데려가 정자의 배출구로 이용하고, 전경들이 여대생들의 가슴과 음부를 더듬고, 교수가 학생을 강간하고, 지하철에서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몸을 밀착하고, 어떤 남대생이 여자 화장실을 훔쳐볼 때, 이것은 일본군이, 전경들 개인이, 교수가, 남대생 개인이 문제인 것이 절대 아니다. 이것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길러진 남성성이 표출된 하나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인 것이다.

96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심사 기준안

구분/심사기준	심사요점	점수
얼굴 전체 (매력, 균형)	- 첫 인상이 쿼트하고 개성이 강하며, 매력(남의 시선을 끄는)적이어야 한다. - 얼굴이 크지 않아야 하며 - 말할 때와 웃을 때 보이는 치아가 골라야 하고 잇몸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 - 눈과 코를 지나치게 정형하지 않았는가 - 얼굴 전체의 균형이 잡혀야 한다.	30점
목, 어깨, 팔, 가슴	- 목이 짧지 않은가 - 양 어깨가 넓으면 안되며, 어깨의 선(각도) 부드러워야 한다. (20도 각도가 이상적) - 유방의 크기, 위치, 선(후보자가 유방을 위로 지나치게 노출시키기 위하여 조작한 것에 유의) - 팔이 체격에 비하여 짧지 않은가 - 팔의 선, 탄력성	20점
하체	- 등의 선(곧은가) - 허리의 선과 사이즈(굽으면 안됨) - 배(나오지 않았는가) - 허프의 사이즈 선 모양(처지지 않았나) - 넓적다리 상부의 앞 뒤 모양(벌어져 있지 않나) - 다리의 선(뚝 곧은가), 탄력성(근육이 보이면 안됨)	20점
전체 피부(색), 흉 유무 (전신의 매력, 균형, 교양미)	- 몸에 상처 및 큰 점 유무 - 걸을 때의 자세 - 몸 전체의 피부 - 매너/ 말하는 태도와 서있는 자세 - 교양미(질문으로 확인) - 가정 환경() - 교육 정도()와 외국어 실력 - 키가 큰 사람을 위주로 하지 말 것 - 전체 체격에 균형이 중요함(다리가 몸 전체의 균형에 맞지않게 길어서 앉으면 작은 사람과 허리가 긴 사람)	30점

개막식 행사

1. 이제까지 강간당한 여성들과 앞으로 강간당할 여성들을 위한 묵념

3초에 1명씩의 여성들이 강간을 당하고 있다. 강간이 이다지도 자주 일어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닐까... 강간은 특별히 재수가 없는 사람에게 가끔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여성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앞으로 강간당할 여성들이란 모든 여성들을 말하는 것이다.

여성들에게 몸조심을 하라고들 한다. 일찍 일찍 집에 들어가고 모르는 남자랑 말하지 말고... 그러나 이제까지 강간을 당한 여성들이 몸조심 안해서 당한 것은 아니다. 몸조심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다. 강간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부장제라는 사회 구조의 문제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끔찍한 일을 소리 없이 처리야만 했던, 그리고 앞으로 그러기를 요구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2. 가부장제 안에서 소리지르기

가부장제는 여성에게 여러가지를 요구한다. 정숙할 것, 조신할 것, 깨끗할 것, 순종할 것, 섹시할 것, 신비로울 것, 아름다울 것...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것인지는 회자되지 않는다.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그런 것들이 태초부터 결정된 여성성인양 너무나 자연스레 규정된다. 그래서 여성들은 자신의 육체를 혹사시키며 다이어트를 해야 하고, 강간을 당해도 입을 다물어야 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남편이 원하면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

여성들의 히스테리는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억압받는 자에게는 그것을 풀 통로가 필요할 것이다. 여성들에게 남은 통로는 무엇일까. 생각하기 전에 우선 스트레스를 풀자. 그리고 그 통로찾기를 시작하자.

3. 억압의 벽을 뚫고 나오기, 벽들 깨부수기

가부장제 안에서 여성의 위치는 중심에 있지 못하고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 공적인 공간이 아닌 사적인 공간에 위치되되고 권력의 핵심에서 밀려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여자 대통령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국회의원 중 여성은 10명도 되지 않는다. 여자가 취직하는 건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회사에 취직해도 올라갈 수 있는 직위에는 한계가 있다.

중심은 주변에게 공세적으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한다. 권력에 접근하여 중심에 편입하거나 주변에 머무르면서 그 끊임없는 요구를 받아들여야만 하며 중심과 주변의 전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성별간의 차이가 차별로 변화하면서부터 쌓아 올려진, 중심이 주변에 가하는 억압의 벽은 너무나도 높다. 이제 중심에 대한 주변의 반격을 시작하자. 그리고 주변에 대한 중심의 억압의 벽을 허물어버리자.

4. 가부장제 장례식

중심과 주변의 해체로부터 가부장제의 종말을 꿈꾼다. 여성임이 즐거운 사회가 되는 것은 남성과 여성 개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가부장제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억압의 기제들을 잠식해 들어가보자. 가부장제를 이 세상에서 말살시키자. **중 여**

안토니아스 라인

대초에 여성이 있었다! 안토니아는 다니엘을 낳고, 다니엘은 테레사를 낳고, 테레사는 사라를 낳고, 사라는... 가부장제 사회의 통념대로라면 발칙하고 불경스러운 여성만의 세계. 웅당 남성들의 분노를 살 일이지만 『안토니아스 라인』을 보면, 세상만사의 시작은 분명 안토니아에게서 비롯한다. 그녀는 가부장의 억압에 시달린 '우리의 해방군'인 동시에 봄을 시작하는 대자연의 어머니이다.

『안토니아스 라인』의 시대적 배경은 2차대전이 끝난 직후, 무대는 네덜란드 시골 마을. 안토니아는 위선적인 교회와 폭력적인 가부장이 지배하는 고향 마을에 돌아온다. 당시 네덜란드는 나치 점령의 여파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다. 안토니아의 어머니가 죽음의 순간까지 남편에게 지주를 퍼붓는 것처럼 마을의 지배자는 폭력적이고 수치를 모르는 남성들이었다. 이 척박하고 피폐한 황무지에 안토니아는 독립적인 여성들이 주도하는, 풍요롭고 안전한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다.

『안토니아스 라인』의 이야기는 장장 4대에 걸친 장대한 역사이다. 이 역사를 서술하는 것은 안토니아의 증손녀인 사라. 사라의 어머니의 임종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온 안토니아와 딸 다니엘의 정작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처음에는 전쟁의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쇼펜하우어의 엄세철학에 빠진 '굶은 손'만이 그녀의 유일한 친구이다. 그러나 순박한 농부 바스가 안토니아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약간 모사란 루니 뤼스가 자신을 도와준 안토니아를 따라 농장에 합류한 이래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호감을 갖게 된다. 이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안토니아의 공동체에 입적한다. 근친상간의 제물이 된 정박아 디디, 남자에게 버림받아 떠돌던 미혼모 레타, 생머리에 대한 화열 때문에 사제복을 벗어던진 보좌신부,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이다.

안토니아의 공동체는 수많은 곡절과 시련 속에서도, 사제를 거치며 성숙하는 자연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이루어낸다. 안토니아가 창조하는 '여성들의 세상'을 보여주기 위하여 여성감독 마린 고리스가 택한 방식은 우화적 수법이다. "『안토니아스 라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몇몇 동화적 요소들이 영화의 리얼리티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동화는 우리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 또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을 가장 정직하게 보내줄 수 있다." 마린 고리스는 세상의 잔인하고 서글픈 단면을 소박하고, 예교스러운 환상과 함께 표현하면서 자신의 유토피아적 전망을 드러낸다. 또한 『안토니아스 라인』의 등장인물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간의 특질을 저마다 대표하고 있다. "어떤 등장인물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재치있는 상상력, 어떤 사람의 주변에 대한 통찰력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자기 자신의 도덕관에도 상처를 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안토니아스 라인』의 인물들은 홀로 서 있을 때는 이상한 개인에 불과하지만 한데 뭉쳤을 때는 완벽한 이 세계의 축소복사판이 된다.

안토니아의 세계는 더욱 상징적이다. 안토니아가 낳은 다니엘은 흔히 '여성적'이라고 말하는 감성에 충실한 미술가다. 그녀는 자유로운 환상과 동거하고, 광폭한 감정의 물결을 마다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녀는 여성과 가정을 이룬다. 반면 다니엘의 딸인 테레사는 '여성적'인 것이 아니라고 강요했던 수학과 철학의 천재이다. 이미 4세때부터 '굶은 손'과 철학적인 토론을 나눌 수 있었던 테레사는 비판적인 세계관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회의한다. 이 두 여성은 지금까지 지배 이데올로기가 강요했던 여성의 진형을 전면으로 뒤엎으면서도, 그 한계점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다니엘과 테레사는 안토니아가 포용하는 품안에서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펼쳐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증손녀인 사라가 글을 쓴다는 것은, 그래서 의미있는 상징이다. 글은 구체적인 사실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며 하나의 개념, 영원한 이념으로 남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 사라의 '안토니아의 세계'를 관찰하고, 기록하고, 판단하면서 '여성들의 세상'을 이상향으로서 제시해준다. 안토니아의 죽음으로 한 시대를 마감하는 것 역시 새롭게 돌아올 봄을 기다리는 희망인 것이다.

『안토니아스 라인』은 마치 축제와도 같다. 모든 것이 용납되고, 모든 것이 용서받는 공간. 축제에서 조롱받는 것은 세속을 지배하던 집단의 권위와 규율이다. 『안토니아스 라인』은 '남성의 이데올로기'를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고, 정면으로 공격한다. 마블린 고리스가 창조해낸 여성들의 공동체는, 그러나 남성들에게 적대적이고 폐쇄적인 집단이 아니다. "이 영화에서 여성들은 일반적인 가족사가 갖는 고정윤리처럼 아내, 어머니, 딸로서의 역할에 종속되어 있기보다는 철저히 자기 자신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다."는 마린 고리스의 말처럼 그들은 '사신에게 속한 삶'을 살고 있을 뿐이다. 누군가를 지배하기를 원하지 않는 남성들만이 안토니아의 공동체에 동참할 수 있다. 그들 또한 자신에게 충실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안토니아스 라인』이 여성에게 접근하는 방식은 훨씬 설득력 있고 독특하며 인간적이다. 마린 고리스는 이 영화에서 여성과 남성을 분리하고 있지 않다. 이 영화에는 사랑이 넘친다. 마린 고리스의 작품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변화에 놀랄 것이다. 여성들은 변화를 인정한다. 이 영화는 마린 고리스의 한층 부드러워진 면이다. 어떤 경우이든 이것이 마린 고리스의 정치적 타협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것은 단지 90년대 페미니즘인 뿐이다." 제작자인 주디 쿠니한의 말처럼 『안토니아스 라인』은 관객의 마음을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한다.

96년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 수상에서 알 수 있듯이 폭력적이거나 신랄하지 않은, 그러나 무엇보다 본질적으로 "여성들간에 존재하는 인간적 유대감"을 그려낸 『안토니아스 라인』은 한편의 동화처럼 포근하고, 호뭇한 미소를 짓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 통신에서 피온 글입니다.

돌로레스 클레이본

돌로레스 클레이본을 보고나면 몇 가지의 단어들이 떠오르게 된다.

성폭력, 아내 구타, 그리고 모성애.

그 중에서 가장 강렬하게 뇌리에 박히는 것은 아마도 '모성애'일 것이다.

이야기는 돌로레스가 일하던 집주인이 죽는 것에서 시작한다. 집주인을 돌로레스가 죽였다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뉴욕에서 기자 생활을 하고 있던 돌로레스의 딸 셀리나가 돌아오고, 돌로레스 남편의 사망 사건을 다루던 형사가 돌아오면서 돌로레스, 셀리나, 노형사는 남편이 죽었던 과거와 연결된다.

돌로레스는 알콜중독에 자신에게 수차례의 구타를 하고, 어린 딸에게 성폭력을 가한 남편을 사고를 가장해서 죽이고 노형사는 돌로레스를 의심하고 추적하지만 결국 사고로 처리된다. 이후 집주인 베라가 죽었을 때 형사는 또다시 돌로레스를 의심하고 추적하는데, 이 과정에서 어릴적 아버지가 자신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셀리나는 돌로레스에 의해 기억을 되살리고 결국 베라 사망 사건 심리때 어머니 돌로레스를 위한 발언을 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사건은 돌로레스가 남편을 죽게 한 과거의 사실과, 베라가 자살한 현재의 사건이 되는데 이 사건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돌로레스와 딸과의 관계가 부각이 되고 있다. 돌로레스가 남편을 죽인 것은 돌로레스에게 가해졌던 남편에 의한 구타도 어느 정도의 이유는 되겠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딸 셀리나를 성폭행했다는 것이다. 돌로레스는 딸 셀리나의 학비를 남편 몰래 모으고 있고 딸아이의 성폭행 사실을 알고 살인을 결심한다. 이 얼마나 위대한 모성애인가...

돌로레스와 셀리나의 관계는 돌로레스의 너무나 희생적인 모성애로 감싸져 있다. 이 영화가 페미니즘영화라 말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되는 부분이 바로 '무조건적인 모성애에 대한 무조건적인 동의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부분에 있다.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고귀한 모성애'라는 한 마디로 멸구어버리려는 현실과 너무나도 닮아있기 때문이다.

셀리나가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 단순히 어릴때 아버지에게 당했던 성폭력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으로 이 영화는 설명한다. 딸이 어머니의 삶을 이해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린시절의 기억만이 작용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여기서 영화는 어머니와 딸과의 관계에 있어 딸이 어머니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관해선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 드러내고 만다.

한편 자칫 놓치기 쉬운 중요한 관계가 하나 있는데 바로 베라와 돌로레스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다. 오히려 어머니와 셀리나와의 관계보다는 돌로레스와 베라와의 관계를 조명할 필요가 있음을 느낀다. 영화는 똑같이 남편을 살해하고 남은 생을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관계를 외면하고 있다. 그들의 관계는 마지막에 셀리나에 의해 법정에서 정리되는 몇마디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그렇게 몇마디로 일축해도 좋을만큼 베라와 돌로레스와의 관계가 가벼웠다고 보긴 힘들다. 돌로레스의 제2의 인생은 베라에 의해 가장 큰 변환기를 맞고 그녀와의 삶이 그녀를 당당하게 변화시켰다. 노형사와 대면했을 때의 당당한 그녀 모습은 남편 앞에서 순종적이던 모습과 크게 대별된다.

『돌로레스 클레이본』은 무조건적인 모성애로 포장되어 있긴 하다. 여성들에게 돌로레스와 같은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면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안에 등장하는 여성들간의 관계에 눈을 돌려보자. 어머니와 딸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에 관하여, 베라와 돌로레스와의 친밀성 공유하는 삶에 관하여 영화가 놓친 부분을 읽어보면 영화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침묵에 대한 의문

마를린 고리스(Marleen Gorris, 1982)의 영화 '침묵에 대한 의문'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은 여성 영화제 심포지엄 논문집에 실렸던 '침묵에 대한 의문의 배급'부분에 상세하게 실려있다. 필자의 경험으로도 이 영화가 상영되는 곳에서 늘 격렬한 논쟁이 뒤따랐다.

우선 여성 관객들은 크게 보아 둘로 나누어진다. 가부장제에 대한 자신들의 분노와 늘 악몽을 꾸는 듯한 느낌을 원시적일 정도로 검열 없이 표현한 영화라고 생각해 박수를 치는가 하면, 결론 부분의 그 대안 없는 히스테리한 웃음이 도대체 여성의 문제를 푸는데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맹렬한 비판을 퍼붓기도 한다. 남성들은 대부분 무조건 불쾌해한다. 위에 언급한 논문집에 실렸던 남성들의 평들은 이렇다.

'나치의 유대인 학살, 헤롯왕의 영아 학살 그리고 흑인 린치를 정당화하는 논쟁이 될 것'

'아무런 성과 없이 선동적이기만 한 영화'

'마치 전쟁 공로자들처럼 영화의 페미니스트적 성격을 떠벌리고 있다.'

'몇가지 재미거리를 섞은 페미니즘에 관한 시시한 우화'

이들 남성 평론가들은 스틸러, 탐정물의 형식 속에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남성들에 대한 공격을 감지했던 것이다. 그리고 더 깊숙히는 여성들끼리 무언 속에 이루어지는 공동 협력 부분에 두려움을 느꼈을 지도 모른다. 프로이드는 '억압된 것의 귀환'이라는 말로 억눌렀던 모든 무의식들이 어느 날 하나의 증후로서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남성들은 현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들을 억압하면서도 어느날 이들이 한꺼번에 그들에게 복수를 해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 영화 '침묵에 대한 의문'은 정확히 남성들의 이러한 무의식을 건드린다. 여성들 사이의 우정이란 남성지배사회가 끊임없이 꾀방 놓으려는 무엇이다. 그들의 결속은 지배를 위해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이 영화에서 세명의 여성은 어떠한 사전모의도 없이 심지어 서로를 알지도 못한 채 한 남성을 살해하는데, 그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이 모든 보통 여자들이 가부장제에서 받은 억압 때문이라고 시사된다. 흥미로운 것은 이 세 여성들이 한마디 대화도 없이 서로를 위어내는 것처럼 법정에서 모인 여성 방청객들도 이들의 진정한 범행의 동기를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 알고 있으며, 영화를 보는 여성 관객들도 그러하리라는 전제하에 영화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추리물 형식으로 영화는 과연 왜 그러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는 문제를 한 여성 정신과 의사가 새여자를 면담하며 밝혀나가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계층, 연령이 다른 이들 네 여자는 만남이 지속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해가는데 법정에서 정신과 의사는 이들이 '정상적'이라고 선언한다. 김사는 의사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그런 결론에 도달했느냐고 묻고 의사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결국 법정에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임을 감지한 여성들은 일제히 웃음을 터트림으로써 남성지배사회가 만들어 놓은 최고의 논리의 언어중의 하나인 법질서에 도전한다. 우리는 당신들 소유의 언어를 거부한다는 저항의 몸짓들이다.

여성관객들에게 보복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종결부는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여성들은 늘 히스테리한 존재로 표현되어왔는데 이 영화 역시 그러한 사회를 추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그 첫 번째고, 상징계의 언어를 사용할 수 없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사회를 여성이 평등이 이루어진 사회로 바꾸어 나갈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두 번째 것이다.

아마도 '침묵에 대한 의문'에 대한 타당한 독해는 이 영화를 하나의 알레고리로 읽는 것일 것이다. 네덜란드와 같이 여성들에 대한 법적인 보장장치가 이루어진 나라, 경제적인 안정을 이룬 나라에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성적 희롱, 직업기회 균등, 탁아의 문제등등이 어느 날 남성 살인이라는 사건으로 분출되었고 영화는 그것을 스틸러 형식으로 알레고리화 해 포착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히스테리적인 웃음, 통쾌한 법정 모독으로 이어지면서 관객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지만, 그러한 카타르시스적인 배설에는 현실의 대리만족이라는 위험에도 따른다.

연어알

여성성, 여성적인 것을 표현한다는 것, 여성주의란 것과 가부장 문화에 의해 규정되고 지배받은 기존의 여성성들과의 차이는 무엇일까? 다르지 않다면 여성주의란 상상의 산물 아닐까? 자신의 시각과 발화와 육체를 끊임없이 회의하며, 남자같은 여성과 전형적인 여성상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속할 곳을 찾아가는 것이 이미 규정된 여성성들간의 갈등이라면 새로운 여성의 정체성 찾기란 어떤 경로를 통한 것인가?

'바그다드 카페'로 유명한 페시 애틀론 감독의 초기작인 이 영화를 두 여성의 사랑이야기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짚고 가야할 것은 여기엔 서로 다른 두 여성이 있고, 그녀들의 심리상태를 그녀들의 입장에서 그려내는 카메라의 시선과 음악이 있다는 것이다. (이 영화를 레즈비언 영화라 칭하기 힘든 이유는 레즈비언 정체성을 가진 두 여성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한 인간을 만나면서 사랑하게 된 때문일 것이다)

오빠의 밀고로 인한 남편의 죽음이라는 상처가 있는 중년 독일인 여성과 버려진 에스키모의 아이로 폭지에 쓰인 카츠뷰라는 독일 지명이 붙어 이름이 된 젊은 여성. 나이도, 민족도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 두 여성은 보보(영화 후반부에 붙여진 카츠뷰의 애칭)가 자신의 출생 지방에 관한 자료를 얻고자 하면서 마주치게 된다. 그녀는 말이 없고, 공격적이며 남자라고 속여 탄광의 광부로 일할만큼 충분히 남성성을 획득하고있다 - 많은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지만 영화 초반부의 그녀가 준남성으로 묘사되는 것에는 동의할 것이다. 반면 스위타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전형적인 여성으로-적어도 보보에 비해-그 사건 이후 고국을 떠나와서 과거의 추억을 잊지도, 상처를 치유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그녀의 침실을 장식한 20년 전부터 모아온 딸기잼 병들은 이러한 그녀의 심리상태를 상징하는 듯 하다)

그녀들은 스위타의 추억과 보보의 정체성을 찾아 독일로 떠난다. 서로의 별명을 지어주고, 과거를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그녀들은 변화를 경험한다. 그녀들의 정체성은 고향이나 남편에 대한 추억, 출생과 같은 것들이 아니었다. 보보가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어왔던 카츠뷰에 굳이 가지 않고서도, 알래스카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을 그녀들의 새로운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찾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위타와 보보를 묘사함에 있어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들의 입장에서 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점을 주의깊게 본다면 더욱 볼거리가 많은 영화가 될 것이다.

성정치위원회가

바라보는 포르노그래피

사슬에 묶인 여자, 정복감에 취하여 바라보는 남자에게 자신의 음순을 완전히 드러내 보이는 여자, 타박상을 입거나 무릎을 꿇고 있는 여자, 새디스트를 기쁘게 하려고 실제로 혹은 짐짓 아픈 척 비명을 지르는 여자, 자신은 즐겁지 않은데도 즐거운 척 하는 여자, 이러한 여자들에게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조금씩 정신이 붕괴되어 가고, 사실 뇌리에 떠나지 않는 우리들의 자매의 모습을 외면 하면서, 섹스와 여자의 지배가 일치되어야 한다는 진정으로 외설스러운 생각에 우리들은 자신을 빈번히 모욕한다. 이 같은 실태의 비참함을 생각해 보라.

글로리아 스테이넘<성에 예술과 포르노그래피>

포르노 그래피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어의 porne와 graphos에서 파생되고, <매춘부에 대해 쓰기>를 의미한다. 포르노 그래피는 말은 섹스에 관해서 쓰기, 관능적인 것의 묘사, 성의 표현, 혹은 이 외의 완곡표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현대의 포르노 그래피는 어원의 의미에 문자 그대로 일치한다. 즉, 비속한 매춘부의 생생한 묘사, 바꿔 말하면 방탕한 게집.....절로써 여자를 표현한다. 그 말은 오늘날 의미가 변하지 않았고, 포르노 그래피라는 장르로 명명된 것은 정확히 표현한 것이다.

안드레아 드워킨<포르노그래피>

포르노에 대한 열린 강의를 준비하면서 성정치위원회 친구들과 포르노를 보았다. 모두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이고, 굉장히 야할 거라는 생각에 관심을 갖고 참여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성정치위원회 친구들의 표정이 구겨지고, 결국 다 끝나기도 전에 그만 보기를 부탁했다. 한 친구는 구역질을 하기도 했다. 우리가 본 포르노에는 삼입성교, 펠라치오, 오랄섹스, 항문성교, 그룹섹스 등등이 나왔다. 그 중에서 펠라치오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성정치위원회 친구들은 충격을 받았고, '너럽다'라는 표현밖에 하지 못했다. 포르노를 보고 든 자신의 느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과정은 5일이 지나서야 될 수 있었다.

포르노는 가장 여성이 배제되어 있는 성의 영역이다. 그 제작 과정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여성과 여성의 성이 배제되어 있다. 여성들은 정말 생물학적 구조상 성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포르노를 보고 싶어하지 않는 것일까? 그들은 단지 포르노를 보고, 단지 역겨움만을 느낀 것일까? 그렇다면 포르노를 찍는 여성들(포르노 배우)은 특수한 성기체인가? 이 여성들은 화면에 나타나 있지만 여성이 원하는 성으로서 나타나 있기보다 남성성기에 대한 자극의 도구로서 나타나 있다. 한편, 포르노는 남성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되어 남성들의 성 교과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성에 대한 성기 중심적 사고, 여성의 성에 대한 대상화 등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들도 상당하다.

포르노의 문제점

남근의 남근에 의한 남근을 위한 문화 - 남성성기중심의 포르노 그래피 -

포르노에서의 시선은 거의 전적으로 남성의 성기에 근거한다. 남성들은 정자의 사출을 위해 자신의 성기에 집중한다. 포르노에서 가장 중시되는 것은 성기의 적나라한 노출과 광적이리만큼 극대화된 성기 집착성이다. 정자 행위의 주체가 되는 두사람의 감정과 상대방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배제되어 버린다.

이러한 남근 중심적인 포르노에 그려지는 여성은 남성의 성적 욕망의 배출구로서, 남성성을 확인 하는 도구로서 그려진다. 여성과 남성이 오르가즘을 느끼는 성감대는 서로 다르다. 여성의 성감대는 질 속에 있지 않다. 포르노에서는 여성의 성적 쾌락은 무시된 채 남성의 쾌락을 위한 묘사만이 주르 이룬다. 펠라치오가 계속 나오고, 삼입성교의 반복인 것이다.

포르노와 현실

'포르노는 필요악이다'라는 일반된 생각이 있다. 포르노가 필요악이라는 생각뒤에는 '남성의 성적 욕망은 참을 수 없는 본능이다'라는 생각이 놓여 있을 것이다. 남성의 성적 욕망은 실제로 참을 수 없는 것인가? 그러한 생각은 이 남성중심사회가 남성에게 그들의 욕망은 인제라도 풀 수 있는 강한 권력을 지닌 것이라는 암묵적 동의에 의한 합리화가 아닐까? 많은 사회의 자료를 보면 성폭력이 남성의 참을 수 없는 욕망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남성이 여성을 강간하는 것은 그들의 참을 수 없는 욕망때문이 아니라 여성이 남성의 성적 배출구로서 보이고, 또 그것을 실행 할 수 있는 성적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포르노는 끊임 없이 여성을 성적대상화시키고, 성교를 통해 그들의 남성성을 확인하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남성 중심사회의 문화를 재생산하고 있다.

여성들만의 신나는 체육대회

1997년 5월 27일은 여성주간 4일째 되는 날. 동학의 여성들이 모여서 신나게 놀아보는 체육대회가 만해광장에서 벌어집니다. 여성들만의 체육대회는 여성문화의 창출이라는 의도에서 그 작은 시작으로 여성들이 함께 호흡하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기획한 행사입니다.

이런시절 우리들의 놀이가 이제와서는 기억 지편으로 사라지고,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놀이문화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즐거운 고무줄놀이(땅다지기), 단체 줄넘기(새신을 신고 폴짝~)를 해보고 발야구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전우의 시체를 넘고넘어 앞으로 앞으로'의 노래가 아닌 '울고불고하는 신데렐라'가 아닌 당당한 여성의 노래에 맞추어 고무줄을 훌~쩍 뛰어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 체육대회 경기진행방식

- ① 밀어부치기 팀 vs 부닥치기 팀으로 팀을 나누고 경기를 진행합니다.
- ② 신청하신 분들이 이 두팀으로 나뉘어 경기가 진행됩니다.
- ③ 모든 경기는 팀대항이고 물론 신청 종목별로 "고무줄 잘하는 사람들", "발야구 잘하는 사람들", "줄넘기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용한 상품 생리대를 드립니다.

2. 체육대회 진행 순서

- ① 신나는 여성들만의 체육대회 시작을 알리는 소리지르기 '첫느낌, 첫경험?'
- ② 밀고 당기기- 줄다리기 한판! 밀어부치기 vs 부닥치기
- ③ 새상달리기-온 힘을 모아 차고 뛰기
- ④ 땅다지기- 우리들만의 신나는 놀이 고무줄놀이!

새신을 신고 폴짝~ 다함께 줄넘기를 합시다! 누가누가 많이 넘나!

장난감 기차

장난감 기차가 칠푹 떠나간다 과자와 사탕을 싣고서
아빠방에 있는 우리 아기한테 갖다주러 갑니다. ♪ ♪

이상하고~

이상하고 아름다운 마녀의 나라 ♪
빛자루로 두드리면 무엇이 될까
에나와라와라 뚝~딱 ♪
딸 나와라와라 뚝~딱 ♪

신데렐라

신데렐라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요. ♪
계부와 오빠들에게 구타를 당했더래요.
샤바샤바 아이샤바 얼마나 분했을까요 ♪
새바샤바 아이샤바 기필코 복수해야지.

>>> 이 노래를 한번 다 부를때까지 고무줄을 밟지 말아야 다음 단으로 올라감.
>>> 예선에서는 발목-무릎-허리, 결선에서는 발목-무릎-허리-만세까지

- ⑤ 씹씹한 여성-체육분과 동아리 '검도부' 시범공연
- ⑥ 꼬리잡기-꼬리에 꼬리를 무는 놀이!
- ⑦ 여성임이 즐거운 사회로 가는길
-여성임이 즐거운 사회로 가기위해 넘어야하는 많은 장애물들을 훌~쩍 뛰어넘어 봅시다

시작: 코끼리 코하고 5바퀴 돌기

- >> 해방에너지 (밀가루에 무친 사탕 찾아먹기)
- >> 사회의 억압망 (그물 통과하기)
- >> 가사노동 산책 (뽀뽀뛰어넘기)
- >> 가부장제 산책 (사다리 올라갔다 내려오기)
- >> 약으로 강으로! (부대자루 입고 달리기)
- >> 자유의 열매!! (메달린 과자 따먹기)

끝: 자유를 얻겠지!

주자는 6명, 밀어부치기 vs 부닥치기 vs 뽀송이

⑧ 시상식 및 폐회사

3. 29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제 뽀뽀를 빌리는데 실패하였고 오늘 발야구에 사용할 배구공을 드디어 빌렸습니다. 우리들의 생필품이자 체육대회를 같이 만들어갈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인 생리대가 드디어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되어가는 것을 보니 드디어 여성들만의 체육대회가 꿈만이 아닌 나의 이상만이 아닌 현실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부풀어 오름을 느낍니다. 체육대회 참가 신청을 받으면서, 동아리지역을 뽀송이분들과 돌아다니면서 여학우분들의 지대한 관심에 다시 한번 놀라지만 아직도 신청률은 1/100이니 이 슬픔을 어찌 다 표현하겠습니까?

아주 즐거운 하루, 아니 아주 즐겁고 신나는 여성주간 한주가 나니,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에 기뻐하면서 5월의 날씨 좋은날 오후에 글을 마칩니다.

(체육대회본과 뽀송이 -뽀뽀와 94 김종현)

뽀송이를 대표하여 어떻게 글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모척이나 기쁘고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요일 늦게 과영이랑 뽀뽀 찾아와서 종여학생회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마음이 글씨 저금 이글을 쓰기 까지 충실히 참여하고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의 문화를 이야기한다!

지금까지 세계는 해석되어왔을 뿐이다. 문제는 세계를 번역하는 것이다! 타당성이 있는 말이다. 그러나 '세계'라는 것에서 배제된 것이 있기에 이 명제를 모든 현실에 적용시키는 것 이전에 잠시 생각해 봐야할 것이 있다. 이 '세계'에서 배제된 현실이 해석도 채 되지 못하고 그 존재를 의심받고 있다면 아마도 우린 해석을 먼저 해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회는 이미 남성중심사회이고 따라서 지배문화 역시 남성의 문화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 속에서 여성들이 진정 편하게 자신에게 가해지는 억압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은 여성들이 점유한 공간이라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할 수 있다. 여성들이 바깥을 지니고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느낄 수 밖에 없는 고단함을 풀어나갈 수 있는 곳은 여성들이 모인 공간 이외에는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여성들만이 모였을 때 형성되는 독특한 문화들을 여성문화라 지칭하게 되었고 그렇다면 여성문화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말하는 것인지 한 번쯤 정리를 해보아야겠다는 기특한(?)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다.

여성문화를 이야기 하기 전에 남성문화를 떠올려 보자. 군대문화, 술, 당구장, 포르노, 음담패설등... 남성의 전유물은 수 없이 많다. 어쩌면 이 사회에서 만들어지고 향유되는 거의 모든 문화를 남성문화라 해도 좋을만큼 광범위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여성문화라는 것이 실제로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 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여성문화 하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수다'라는 것이다. 수다는 여성들의 전유물로 인정됨과 동시에 '쓸데없는 지껄임' 정도의 평가를 받아왔다. 우리는 대개 사회를 돌아가게 한다는 공적인 영역의 발화들, 예를 들면 회의 석상에서의 발언이나 정치나 문화에 대한 토론등과 같은 것들은 언제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인 반면에 수다는 시종일관한 주제도 없고 시작과 끝도 없고 감정적이며, 따라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들로 수다는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즉 제도권에 편입되지 못하는 것이며 여전히 제도권 밖에 주변으로 남아있다. 이 수다라는 것을 '문화'라고까지 지칭하기를 꺼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수다문화로 대표되는 여성문화는 하위문화로, 열등한 곳에 위치지어져 왔고 그러한 이데올로기 속에서 그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여성 자신도 수다를 평가절하하는 것에 동조할 수 있는 것이다.

문화란 동질성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힘이다. 요즘 사람들은 흔히 90년대 학번들을 가리켜 '비트'적 문화세대라고 일컫는다. 비트적 문화 세대란 논리와 반성이 사라진 무한질주로 표현되는 반항, 빠름, 단순함 등으로 표현된다. '비트'적으로 묶인다는 말은 그 구성원들이 이러한 정향들에 대하여 동질감을 느끼고 그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재독해시키며 코드화시킨다는 말이다. 이러한 동질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 주변에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바운더리에 포섭되기 위하여 우리는 은연중에 이러한 경향을 따르려는 면이 있다. 그러면 초점을 다시 돌려 여성문화로 돌아가보자. 여성들의 문화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 존재하더라도 그것을 진실로 '문화'라 느껴지지 않는 것은, 우리사회에 이미 지배문화로 존재하는 남성문화의 바운더리에 소외되지 않고 포함되기를 바라는 여성들의 바램 또는 관망이 아닐까? 물론 남성문화, 여성문화라는 어떠한 틀을 명확히 나누거나 선을 긋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그리고 '공존'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나눔에 반대를 하는 혹자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역사속에서 문화의 창출과정을 바라보았을 때,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명백히 존재하는 성차를 보았을 때, 성차가 차별로, 여성이 남성의 전제중 극히 일부분으로 여겨지는 현실속에서 과연 이러한 나눔의 작업이 소용없는 일일까?

사람들이 여성문제 혹은 여성문화를 이야기 할때 흔히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것이 바로 흑인문화이다. 흑인과 여성은 서로 교감할 수 있는 동질적 측면이 많다는 것인데, 이는 흑인에게 있어 피부색의 차이가 차별로 이어졌다면 여성에게는 성의 차이가 차별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즉 생물학적인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는 과정의 동질성이다. 흑인들은 백인들에 맞서 자신들이 향유하며 저항의 기제로 삼을 수 있는 그들 자신의 문화를 창출해 내었다. 이제 더 이상 흑인들의 문화가 하위적이거나 불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요즘 비주류 문화가 주류문화화하는 현상과 키위가 클래식한 문화를 잠입해 들어가는 현상처럼 경계를 허물며 흑인들의 문화는 세련됨과 진보, 그리고 신선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획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문화창출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유효한 수단인지 주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문화는 어떠한가? 여대에서는 여성문화가 존재하지만 남녀공학에서는 여성문화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은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이미 우리는 남성을 묶는 강력한 바운더리 앞에서 자신을 잊은 채 인정되지 않는 포섭을 피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차피..라 하며 체념하고 있는 것인가? 플라톤의 이데아론처럼 변화를 악으로의 근접으로 여기는가? 이제 '나눔'의 시작이 필요하다. 이것은 문화를 통하여 여성의 identity를 획득하고, 정형화되지 못한 채 개인적인 것으로 남아 있는 여성문화적인 것을 공동의 작업을 통하여 재해석하고 코드화하여 여성의 바운더리를 획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수다가 진짜 여성문화일 수 밖에 없는 것은 수다는 순수하게 여성들을 위해 여성들이 창출해 낸 문화이기 때문일 것이다. 흔히 아줌마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다. 공적 영역에서 소외되고 사적 영역 안에 갇혀 버린 여성들이 스스로 인식하기도 전에 형성해낸 문화가 바로 수다이다. 수다의 언어는 여성들로 하여금 가장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을 갖게끔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수다에서 풍기는 분위기를, 채득된 느낌을 사람들은 보편적인 「문화」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부정적인 대답이 적용된다. 우리는 명확하게 여성들의 문화라고 불릴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계속 찾아본다. 하지만 길게 생각하지 않아도 떠오르는 익숙한 남성의 문화-남자들만의 세계, 진취적, 술주정의 자연스러움-에 비해 딱히 꼬집어 내세울만한 여성의 문화는 없다.

우리는 왜 굳이 숨어 있는 여성의 문화를 찾으려 하는가. 정말 여성의 문화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는가. 여기서 잠시 여성적인 시각이 들어가 있는 작품-영화, 소설, 시, 그림 등-을 처음 접했던 경험자의 이야기가 논의에 보탬이 될 듯 하다.

그것은 여태껏 보아온 매체와는 달리 내가 해석하지 못해 온 나의 경험들을 말해주는 점에서 후련함, 동질감 또는 막연히 좋음, 편안함 등을 느꼈던 것 같다. 그러나 딱 꼬집어서 어떻게 다르지, 무엇이 그렇게 편안하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고, 처음 그 영화(시, 그림)를 보았을 때는 오히려 이해 불가능할 정도였다. 그러나 같이 본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그건 아마도 자신의 일상과 또다시 연결시켜내는 작업이 아니었나 싶다. 그리고 나서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예전과 달리 약간 달라보이면서 이해하게 된 것 같다.

-「여성문화를 이야기한다」를 위한 집국토론 중 발해-

왜 위의 화자가 처음부터 이해하지 못했을까가 우리의 주된 화두가 된다. 여성적인 시각으로 접근한 매체라는 것들은 이제껏 우리가 접해온 여타의 매체들과는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그동안 남성중심적인 문화 안에서 살아왔고 채득화한 상태에서, 또한 여성적 시각으로 접근 하는 무언가를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그 문화에 대한 이해의 코드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제2회 性문화상 작품전

총아학생회는 이번 여성주간을 준비하면서 여성들만의 체육대회 경기 종목을 위한 설문 대자보를 동아 곳곳에 붙여 놓았었다. 되도록 많은 여학우들이 되도록 많은 관심을 갖길 바라면서, 그 대자보에는 여학우들의 관심과 더불어 남학우들의 관심의 흔적이 역력했다.

‘오입’, ‘썸질’...

누가 보아도 여학우들이 썼다고 생각하기 힘든 단어들이고 남학우들의 장난이라고 하기에 그 정도가 심하다. 한마디로 동학의 성인식 현장을 그대로 드러내는 단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아직도 이곳 동아에는 감추어야만 할 것, 사적인 것으로 치부해 버리고 마는 성에 대한 관념들이 있음을 읽어낼 수 있다. 이러한 관념들은 性이라는 단어에서 sex 이외에는 아무것도 떠올릴 수 없는 성기중심적인 사고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성을 단순히 sex로만 이해함으로써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맥락에서의 성을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동아에는 성을 개개인의 문제로 치환하는 유행같은 담론들이 배회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性sexuality은 각기 그 정의와 규정 그리고 지침이 상이했고 역사적/사회적/문화적으로 다르게 의미화 되었다. 동시에 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각종 평가들 즉 도덕/비도덕, 정상/비정상을 가르는 논쟁은 性이 사적인 소유물처럼 이미 주어진 어떤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는 다양한 사회적 실천들/사회적 정의 그리고 그것을 지배적으로 규제하는 권력자와 그에 저항하는 자들 사이의 투쟁의 결과라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성을 둘러싼 억압적 담론이 기능하는 방식은 숨쉬는 것처럼 매우 일상적으로, 자본주의적 가부장제라고 하는 그물망으로 촘촘하게 얹혀있다.

성문화상 공모전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성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개최되었다. 이는 일상적으로 기능하는 억압들과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권력관계들을 치열하게 파헤치고, 그 결과물은 문화적 실천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공적 영역으로 끌어냄으로써 동아내에 성담론을 형성하고 올바른 성인식의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자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2회 동악 性문화상 현상공모 참가팀

1

한국어문학부 96학번 김선경

- 작품제목 : 오월의 신부
- 참가부문 : 단편 소설
- 참가동기 : 동성애도 자연스러운 사랑의 감정으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또 하나 부수적으로 여성에게만 혼전 순결을 강요하는 사회를 꼬집어주고 싶었다.
- 주 제 : 인간 사회에 뿌리박힌 편견(性과 관련하여 동성애)

사랑을 인간사회에 있어서 제외시킨다면 우리 사회가 성립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만큼 사람들의 입에 수없이 오르내리고 문학 전반에 걸쳐 중요한 소재 거리가 되어왔다. 그러한만큼 우리는 사랑에 대해 수학 공식과 같은 방식을 고집해 왔다. 다른 말로 뿌리 깊은 편견이라 해도 될 것 같다. 이는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고 있다. 이들은 동성애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인간들 중에 왼손잡이도 있고 오른손잡이도 있듯이 이성애자가 있다면 동성애자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또 한가지 이 소설을 쓰게 된 이유는 가부장제가 만들어 낸 여성에게만 순결을 강요하는 부당함을 꼬집어 주고 싶어서였다. 여성이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려면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은 남성들도 동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그 틀을 깨고 싶었고, 여성끼리도 사랑할 수 있듯이 사랑한다면 결혼이 전제가 되지 않더라도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행동해도 되지 않을까 한다.

물론 사랑 없는 본능에 의한 섹스에 대해서는 나 역시 반대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소설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한 짧은 말을 마친다.

2

인도철학과 92학번 김남길, 오국영, 박상표

- 작품제목 : Toy Story
- 참가부문 : 단편 소설
- 참가동기 : 남성, 여성 모두가 다 크게 보면 인간이다. 우리는 같은 인간임을 느껴보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다.
- 주 제 : 힘의 논리에 의한 작용과 반작용의 역전관계

요즘 사회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테마중의 하나가 페미니즘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원래적 의미가 오도된 느낌을 자주 느끼게 된다. 페미니즘을 그 동안의 사회구성체에서 남성위주 진행방식에의 반발로써 여성상위 혹은 여성해방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술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는 갔지만 그 술 안에 들어가 오히려 나무박에 보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본인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여성상위 혹은 해방이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 평등 혹은 진정한 인간성의 실현의 측면이 강조되고 앞세워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손에 잡히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오히려 더 어렵지 생각한다.”

3

인문학부 96학번 박병길

- 작품제목 : 무기여 잘있거라
- 참가부문 : 노래가사바꾸기
- 참가동기 : 차별받는 여성의 생활을 느꼈으면...
- 주 제 : 차별 받는 여성의 일상

PM 10:00 술을 먹고 있다. 하나 둘씩 일어서는 여학우들. 좀 더 얘기하고 술마시고 싶은데 이런 사소한 차이를 보면서 씁쓸한 생각을 했다. 여자는 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집에 일찍 가야하는가. 여자이기 때문에 많은 차별을 받는다. 차별 받는 여성.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차별에 대해서 여성들은 일어서야 한다. 그것이 차별이라고 느끼지 못한다면 느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성해방이란 다른 게 아니란 생각이 든다. 자기의 꿈을 버린 채 아이를 위해 남편을 위해 살아야 하는 대다수의 여성. 이제 자기의 꿈을 향해 달릴 때다. 그 길이 힘들지라도. 그래서 나는 일상에서 느끼지는 여성의 차별을 노래하고자 했다. 여성 스스로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성 해방의 길은 힘들다. 하지만 스스로 그러한 모순을 느끼고 여성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과 같이했으면 한다.

4

수학과 91학번 신태윤

- 작품제목 : 못난 선배
- 참가부문 : 시
- 참가동기 : 여자 후배와 함께 한 술자리에서 습관처럼 굳어버린 우리 남학생들의 성차별을 깨달았다(?)
- 주 제 : 일상화된 성차별. 말보단 실천이 아닐까?

나 자신, 나름대로는 성문제에 대해 관심도 있고 또한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여자 후배를 통해 나에게도 습관처럼 굳어져버린 너무나 자연스런(?) 성차별의 주동자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낯뜨겁던 선배의 부끄러움이란...

5

야간무역 95학번 신동호

- 작품제목 : 방앗간집 딸
- 참가부문 : 자작곡
- 참가동기 : 벽보를 보고
- 주 제 : 이 시대의 성의 현실

방앗간집 딸이란 자원속의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대초의 순수한 성의 이미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방앗간집 딸이 이 현대사회의 물질 문명속에서 결국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마는 현실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보석방 아들은 현대 산업사회의 상징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석이란 이미지를 생각해 본다면 보석이라는 것이 순수함을 잃어버린 인간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참가 작품소개는 여성주간 기간 내에 판정도 주위에 전시됩니다.

1. 오월의 신부

「같이 보어,」

요즘 들어 부쩍 말수가 줄어든 소연이는 이 한마디를 붙박 내뱉어 버리고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푸르거만 했다. 하늘의 구름이 그녀의 얼굴로 자리를 옮긴 것일까? 그녀의 얼굴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왜 그러는지 묻고 싶었지만 한동안 그녀의 긴 침묵에 보조를 맞추어야 했다.

「요즘 민규와 잘 안되니?」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먹구름은 금시라도 비를 뿌릴 듯하다가 그녀가 하늘을 향해 고개를 치켜들자 눈먼지리에 그대로 머물러 버렸다.

그녀가 이성에 눈을 뜬 후로 그녀의 삶이란 남자와 사귀다 헤어지고 슬피하다가 또 다시 새 남자 친구를 만나는, 그런 생활의 반복이었다. 그녀는 젊고 머칠 후엔 그녀의 스물한 번 째 생일이 돌아온다. 여전히 아름답다. 앞으로는 한동안 그녀의 이러한 생활은 계속될 것 같다. 그녀가 민규라는 아이를 사귀고 있는 지금에도 그녀 주위를 서성이는 남자들을 석어도 대어젖은 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사원이다. 그리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달은 오월이다. 그녀는 오월의 싱그러움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내가 그녀를 보며 느끼는 것은 연약함이었다. 병아리가 알을 깨부수고 나오듯이 회갈색의 가지에서 처절해 보이는 연꽃빛의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을 그녀를 볼 때마다 떠올리곤 하는 것이다. 누군가 보살피 주어야만 할 것 같은.....

나는 그녀가 한 남자와 일 년 이상 사귀는 것을 보지 못했다. 제일 오래 사귀었던 게 육 개월이었나? 남자와의 관계는 모두가 그녀로 인해 끝이 났다. 첫 번째 남자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서 꽃을 싫어한다고 말했다가 그녀와 헤어졌고, 두 번째 남자는 그녀가 왼손잡이인 것을 모르면서 왼손잡이들은 어딘지 모르게 병신 같다고 말했다가 헤어졌다.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비슷한 이유들로 그녀와의 관계가 끝이 났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 그녀와 헤어지게 되었는지 모른다.

민규는 그녀의 일곱 번째 남자이다. 민규는 백관십 센티미터의 큰 키에 바른 체형이었다. 나는 소연이의 남자 친구가 바뀔 때마다, 그녀의 보호자라고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그들을 모두 만나 보았다. 하나같이 바른 남자들이었다. 그 중에는 미남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소연이의 눈이 의심스러운 정도로 못 생긴 예들이었다. 왜 하필이면 고르고 골라서 못 생긴 남자들하고만 사귀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말없이 빙글 웃기만 하였다.

「여우사이-여기서 우리의 사랑을 이야기하자!」라는 커피숍에서 셋이서 만나 적이 있다.

「지는 소연이와 동거하고 있는 최지수라고 해요.」

「무척 부러운데요. 저도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민규는 정말 부러워하는 듯한 표정으로 소연이의 나쁜 면모를 가며 쳐다보았다.

「소연이와 사귀고 싶으면 저한테 잘 보이셔야 해요. 전 소연이의 보호자인 셈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만 해주십시오.」

「일단 그 태도는 맘에 드는데요. 반은 합격이에요. 소연이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라면 문제없습니다.」

그는 정말 나에게 짐수를 따러는지 지나치게 듣기 좋은 말만 골라 했다. 우리 셋은 모두 웃고 있었지만, 정말 내심으로 웃었던 사람이 있었을까? 나는 걱정이 되었다. 「민규도 소연이에게는 역부족이다.」 내가 남자들에게 기대했던 대답은 좀 색다른 것이었다. 하지만 하나같이 모두 속마음과는 다른 말들을 했다. 소연이와 계속 사귀기 위해서는 나란 존재를 무시했어야 했다. 그리고 나보다 소연이를 잘 알아야 했고, 나보다 소연이를 아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로지 소연이에게만 사랑을 쏟아야 했고, 너무 자신 만만해서도 아니 되었다. 언제나 조심하고 조심해야 했다.

「민규가 너한테 소홀하게 대하니? 아니면 무슨 실수라도 했니?」

「아니. 민규는 가을을 좋아한다.」

그녀가 가을이라는 계절을 유난스레 싫어하기는 했다. 뚜렷한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이런 말을 했을 뿐이다. 「가을」이라는 발음이 어디지 모르게 서늘하다고.....

「좋아하는 계절이 다를 수도 있지.」

「오월을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 그런데 민규는 아냐. 그래서 슬피, 또 다른 남자를 만나야 한다.」

게.

나는 그녀의 정서를 이해할 수 없다. 그녀가 과연 사랑이라는 걸 경험해 봤을까? 슬프다면서 매번 눈물을 흘렸지만 남자 친구와 헤어지는 게 슬피서 우는 것 같지는 않았다.

「여러분, 이번에 새로 전학 온 김소연이라는 친구예요. 사이 좋게 잘 지내세요. 소연아, 애들한테 인사해 야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반으로 그녀가 전학을 온 것이다. 오월 중순의 일이었다. 다른 도시에서 온 그녀는 허리에까지 달을 정도로 긴 생머리를 지니고 있었다. 고산 지대의 험한 바위들에서 가냘픈 뿌리를 내리고, 솜털로 덮인 회백색의 꽃잎 위에 새벽 이슬을 머금은 솜다리를 연상하게 했다. 우리 나라에서 피는 꽃은 솜다리라 하고,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알프스의 실원에 핀 꽃은 에델바이스라고 말하므로 엄밀하게 따지자면 이 둘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저기서 에쁘다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 왔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고, 목소리는 어떨까 하는 기대 속에 아이들의 시선은 그녀의 입술로 향하고 있었다. 앞에서 두 번 체 줄에 앉아 있던 나는 그녀의 입을 자세히 바라보았다. 선명한 입술 선은 전단꽃잎을 띠고 있고, 윗입술보다 아랫입술이 약간 도톰한 육감적인 입술이었다.

「김소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같은 또래의 우리에게 어색한 존댓말을 써가며 간단히 인사를 마친 그녀의 목소리는 가냘픈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약간 굵은 저음이었다. 내 일자리에 앉히고 싶었으나 그녀는 맨 뒷자리의 빈자리에 가서 앉았다. 캔스에 옆에 앉아 있는 작품을 원망하며 나는 같은 교실에서 함께 생활하게 된 친구에게 가지는 호기심 이상으로 그녀에게 관심이 쏠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나는 계속 그녀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열자리의 사과 정식을 먹은 그녀가 교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는 양극과 음극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듯한 묘한 힘에 이끌려 나도 모르게 뒤를 쫓았다. 느릿한 걸음으로 운동장을 한 바퀴 돈 그녀는 운동장 한 구석에 놓인 벤치에 살며시 앉았다. 가만히 지켜보다가 나는 그녀가 앉은 벤치로 가서 한 귀퉁이에 앉았다.

「안녕, 난 쾨지수라고 해. 오늘 전학 와서 좀 얼떨떨하지. 너랑 앞으로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이 학교에는 나무가 많구나. 여기가 맘에 들어.」

보일 듯 말 듯한 눈인사로 말을 대신한 그녀는 학교를 한 번 둘러보고는 의외의 말을 꺼냈다. 나는 다음 말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몰라 멍청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말대로 우리 학교에는 나무가 많았다. 운동장은 푸른 잔디로 덮여 있었고, 은행나무, 벚나무, 향나무, 능소화 등이 교정 여기저기를 푸르름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학교 담을 두르고 있는 들장미가 한창 흐드러지게 피어 있어 교정의 아름다움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다. 우리 학교의 교복은 상하 의가 모두 청록색 바탕에 검정색의 굵은 체크 무늬로 이루어져 있고, 상의 속에 흰 블라우스를 받쳐입도록 되어 있었다. 그녀는 윗옷을 벗어 가지런히 무릎 위에 올려 놓고 있었다. 우리가 앉은 곳의 반대편에서 약하게 희옴모양을 만들면서 불이 온 바람이 그녀의 블라우스를 스치고 지나갔다. 바람은 블라우스를 그녀의 몸에 밀착시켰고, 블라우스는 그녀의 가느다란 허리선을 드러내 주었다. 순간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다.

「네 허리 안아도 되니? 바람이 부니까 추울 것 같아서.」

내가 생각해 봐도 말도 안되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그녀의 허리를 안았다. 아니, 말을 채 마치고도 전에 내 손은 그녀의 허리에 놓여 있었다. 얼떨결에 저절로 놓고는 곧 바로, 그녀가 화를 내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들었다. 순간 그녀의 눈이 동그래지기는 했으나 내가 하는 양을 지켜보고만 있을 뿐이었다. 우리의 이마에 은근히 맺혀 있던 땀방울이 추울 것 같다는 내 말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다고 해서, 내가 사내아이처럼 머리를 스포츠로 감고, 농구화를 신고 다니는 것은 아니었다. 나는 사회에서 말하는 지극히 평범한 여고생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것은 이디까지나 삼사 십대 이상의 어른들의 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만 내 생각은 아니라는 말이다. 나는 단정하게 교복을 차려입고, 귀밑에서 팔랑거리는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다.

「소연아, 오늘 나랑 햄버거 먹으러 가지 않을래?」 같은 반이었던 경희라는 아이는 소연이와 함께 놀고 싶어서 자주 그녀에게 말을 걸곤 하였다.

「가고는 싶은데…….」 소연이는 나를 바라보았다.

「소연이는 오늘 나랑 갈 때가 있어.」 내가 느끼기에도 동명스런 말투로 경희에게 한마디를 던졌다.

「니가 소연이 주인이야? 왜 맨날 데리고 다니면서 둘이서만 놀아?」

「니가 무슨 상관이야? 소연이랑 둘이서 놀든 말든.」

「그 애가 한마디만 너 시비를 걸었다면 나는 교무실에 불들려 가야 할지도 몰랐다. 고맙게도 소연이가 나서서 내 편을 들어주었다.」

「왜들 그래. 싸우지 마. 경희야, 미안한데 오늘 지수랑 약속이 있었거든. 정말 미안해. 다음에 먹으러 가자.」

사실 우리는 그 날 아무런 약속도 없었다. 내가 그녀의 집에 놀러 가거나, 그녀가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게 방과후에 흔히 있는 일이었다. 거르는 날이 별로 없었으므로 그게 약속이라고 우기자면 약속이라고 할 수 있지만, 충분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이다. 경희는 자기 자리로 가서 앉으며 반 애들이 다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말했다.

「재네 연예하나 봐. 맨날 둘이서만 다니잖아. 소연이만 불쌍하지. 지수가 완전히 지 물건 다우듯이 하잖아.」

자리에서 일어나는 나를 소연이가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을 하고 말려서 다행히 그날은 그냥 넘어가게 되었다. 사실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소연이에게 미안하다. 나 때문에 친구를 많이 사귀지 못한 것이 사실이 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연이가 다른 애들과 히히덕 거리면서 노는 게 보기 싫었다. 소연이는 항상 내 곁에만 있어야 할 것 같았다.

5월 1일은 소연이 생일이다. 지금이 4월 중순이니까 정확히 2주 남았다. 소연이에게 뭘 선물해야 할까? 아주 맛있는 생일 파티가 되었으면 좋겠다. 스무 살의 여대생에게 뭘 줘야 할까? 스무 송이의 백장미, 시트러스 향수, 그리고 키스? kiss? 한 번 짚은 그녀와 해 보고 싶다.

연습장에 팬이 굴러가는 대로 낙서를 하던 나는 자신에게 놀라고 있었다. 여자와 키스를 하려고 하다니…….

나는 대학에 들어오면서 아빠를 줄라 연세 평 짜리 오피스텔에서 혼자만의 생활을 시작했다. 그녀가 대학에 입학하고 한 달 후 그녀의 집은 인천으로 이사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수업이 있는 날은 학교 가기 힘들다면서 일주일에 두 번씩 내 오피스텔에서 잤다. 나는 그녀가 내 집에 오는 게 좋았다. 지저분한 나의 오피스텔을 깔끔하게 정리하여 준다던가, 맛있는 요리들을 만들어 준대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같은 대학에 들어 오긴 했지만 전공이 달라서 고등학교를 졸업 한 후로는 예전처럼 자주 만날 수 없는 그녀를 볼 기회가 주어지는 게 좋았다. 그녀가 내 눈앞에만 있다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좋았다. 무엇보다도 나의 오랜 친구이고, 그 만큼 부담 없는 친구이니 말이다. 번거롭게 왔다갔다하지 말고 아예 들어와 살라고 여러 번 말을 꺼내 보았지만 그녀는 변변히 거절했다.

「소연아! 스무 번째 생일 축하해.」

한 손에는 장미꽃 다발과, 나머지 손에는 선물이 들어 있는 듯한 쇼핑 백을 들고, 오피스텔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녀에게 나는 생일 축하의 말과 동시에 폭죽을 터트렸다. 아침에는 그녀의 엄마가 끓여 준 미역국을 먹고, 오후에는 3주 전에 새로 사온 남자 친구와 지내다가 여덟 시가 가까워서야 그녀는 오피스텔로 왔다. 하루 종일 불었던 풍선을 여기저기에 매달아 놓고, 크라운 베이커리에서 하트 모양의 생크림 케이크도 사다 놓았다. 엄마를 불러서 그녀가 좋아하는 과일 샐러드도 만들어 놓고 기다렸다. 스무 송이 준비하기로 했던 백장미를 백 송이나 사다 놓고, 난 뉘즈 모르게 밀리는 마음으로 그녀를 기다린 것이다. 하늘거리는 흰치마 위에 앙증맞은 들꽃을 수놓은 블라우스를 입고서 뺨이 들어간 진홍색 립스틱을 바른 그녀의 모습은 오월의 요정 같았다.

어리둥절해 하던 그녀가 정신을 차리고 난 후, 탁자 위에 놓인 장미꽃에 그녀의 시선이 머물렀다. 소연이는 나를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다. 나 역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주 길어질 것 같았던 침묵의 시간은 그녀로 인해 끝났다. 등줄기에 땀이 흐르는 것이 느껴졌다.

「어디서 이걸 구했어. 고마워. 사실 흑장미를 받아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았거든. 오늘 꽤 바빴잖아.」

그녀는 흑장미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게 가끔 이런 말을 했다.

「난 스무 살 생일에 백장미를 선물 받고 싶어. 흔해 빠진 흑장미가 아닌 하얀 백장미를 받아. 너도 전에 한 번 본 적 있잖아? 꽃잎에서 약간 물기가 묻어 나는. 그리고 꽃송이가 아주 컸으면 해. 그런 꽃을 백 송이 선물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아마 그 사람과 결혼할 거야.」

백장미를 사는 건 쉽지 않다. 그녀의 말대로 흔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새벽부터 일어나 서울에 있는 꽃 도매 상가를 샅샅이 뒤져서, 서초동 꽃시장에서 어렵사리 찾아낸 것을 몽땅 다 사 버렸다. 난 그 장미를 꽃을 화병도 준비해야 했다. 고심 끝에 사기로 결정한 화병은 반투명한 코발트색의 일자로 길게 뻗은 유리 화병

더라도 일 한시에는 들어오는 그녀가 연락도 없고 집에도 늦게 들어오자 난 안절부절못하고 있었다. '일찍 들어온다고 했는데' 화도 나고 걱정도 되었다.

시계 바늘이 한 시를 가리키고, 땀이 흘렀다. 문을 열자 그녀는 내게 안기듯이 쓰러졌다. 언제나 단정한 모습의 그녀가 헝클어진 머리와 등잔만해진 눈으로 나에게 안긴 것이다. 그녀를 침대에 눕혔다. 차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참아 왔던 듯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민규가 생일이라고 서울랜드 장미 축제에 데려간다…… 그래서 따라… 갔는데… 이상한 데로……」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그녀의 입을 막고, 그칠 줄 모르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녀를 으스스하게도 힘껏 안아 주었다. 그녀는 몸을 바르르 떨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막 흠을 뚫고 올라온 새까맣다. 너무나 연약해 보인다. 누군가 돌보아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녀에게 물과 햇빛이 되고 싶었다. 전정체를 먹어서 간신히 그녀를 재웠다. 난 그녀를 지켜 주기 위해 하얗게 밤을 지새워야 했다. 그녀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라면 그게 무엇이든지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과 함께.

어슴푸레 동이 터 오는 걸보고 민규에게 전화를 걸었다. 잠에 취한 목소리가 수화기 저편에서 새어 들어왔다.

「어보세요」

「나 지순데 지금 좀 만났으면 해」

「지수씨, 생각보다는 늦게 전화하네」 갑자기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전화를 기다렸다는 듯이 민규의 목소리가 바뀌었다.

「어쨌든 지금 좀 만나고 싶은데」

「나는 좀 더 자야 돼. 새벽부터 만날 데도 없는 데, 하여간 성격도 별나다니까. 남들 다 자는 이른 새벽에」

나는 한바탕 욕을 해 주고 싶었으나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참아야 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나는 그의 말들이 너무도 어이가 없었다. 오히려 내가 애원 조가 되어 그와 약속을 정했다.

열한 시에 만나기로 했던 그는 열두 시가 되자 스스로 문을 열며, 셋이서 전에 만났던 '어우사이'로 들어왔다. 손님은 우리와 구석에 앉은 한 쌍의 연인이 전부였다. 미안한 기색도 없이 내가 앉은 테이블로 걸어와 앉으려는 그의 뺨을 세게 후렸다. 그래도 속이 풀리지 않았다. 그가 빙긋 웃었다.

「뺨을 때리는 솜씨가 꽤. 그런데 내가 왜 맞아야 하는지 모르겠군」

「뚝뚝히 들어 뒀, 이 자식아. 한 번 만 더 우리 소연일 올리면……」

「우리 소연이라……」 여전히 느긋거리는 눈빛으로 내가 자기 앞에서 재물을 부리기라도 한다는 듯이 쳐다보다가 말을 이었다. 「어쩌면 인간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나는 처음 만났던 때를 떠올리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이제 소연이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려 했지. 아니, 했어. 나는 개가 황홀한 눈빛으로 날 바라볼 거라 생각하고 있었어. 하지만 내 기대를 저절로 박살냈지. 고백할 게 있다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자기는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바로 너였어. 둘이 입도 맞았다며. 아니, 키스했겠지. 하하하……」

음악 소리가 그의 웃음소리에 묻혀 버릴 것 같았다. 가게 안의 사람들에게 다 들릴 정도로 큰 웃음 소리였다.

「그래서?」

「그래서는 무슨 그래서야. 너원 미쳤어. 왜 멀쩡한 남자를 놔두고 여자끼리 키스가 뭐야, 키스가. 그래서 내가 남자와 키스할 영광을 누리게 해 주겠노라고 했지」

「그만해」 그의 입을 쫓아 버리고 싶었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억센 팔이 나를 붙잡고 놓아주질 않았다.

「내 말이 귀에 쏘나 거슬리나 보지. 내 말 끝까지 들어 봐. 개, 내가 하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될 걸 가지고 고결하신 척 반항하는 거야. 반항하는 그 모습이 더 귀엽더군.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번엔 붙잡지 않았다. 가게문을 밀고 나올 때까지 그의 비웃음 소리가 등뒤에 내리꽂혀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아야 했다. 오피스텔로 들어가기는 싫었다. 공중 전화 부스로 들어갔다.

한 시간 후 나는 여관에서 지리산에서의 그 남자와 알몸으로 뒹굴고 있었다. 몇 시간을 그렇게 뒹굴고 있었을까. 내가 먼저 여관으로 끌고 간 적도, 그렇게 열심히 그를 애무한 적도 없었다. 그는 나의 태도가 이상하다고 여기는 것 같았으나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것만은 그가 고마웠다. 그는 내 기분이 이상하거나 떨거나 나와 섹스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더욱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았다. '속물'하고 입으로 나지막하게 승

「자기 욕중에 화분이 많이 있는 집이 우리 집이야」 그녀의 아파트 근처에 다다랐을 때, 손가락으로 베란다에 온통 화분으로 가득 찬 집을 가리켰다.

「자기 말야? 너희 집 무슨 화분 농장 아니?」

「화분은 무슨. 그냥 얼마랑 내가 취미로 키우는 거야. 빨리 가자」

그녀의 집에 들어섰을 때 나는 입이 벌어졌다. 사실 화분 한두 개쯤 없는 집은 없겠지만 그녀의 집에는 지나칠 정도로 많았다.

「이게 다 무슨 꽃들이야? 나는 꽃이라고는 장미하고 안개꽃밖에는 잘 모르는데」

「이건 치자 꽃이고, 이걸 제라늄, 히아신스, …… 꽃은 나에게 될 하라고 억지로 강요하는 법이 없지. 아, 꽃은 좀 있다 보고 우선 내 방에 들어가자」

그녀 방에는 무슨 주황색의 꽃이 피어 있는 화분이 놓여 있었다. 그녀가 이름을 알려 주었지만 좀 길고 처음 들어보는 거라 곧 잊어버렸다. 평소엔 보아 오던 깔끔한 그녀의 인상대로 그녀의 방은 잘 정돈되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교과서와 문제집들이 있었고, 한 쪽에 책장이 있었는데 꽃에 관한 백과사전이나, 『꽃가꾸기』라고 적혀 있는 책들이 책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전학 오던 날 내게 왜 학교에 나무가 많아서 좋다고 했는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었다. 책장에 일기장이 꽂혀 있었다. 내가 집어들려고 하자 그녀는 보지 말라며 그것을 서랍에 넣어 버렸다.

「부엌에 가서 마실 것 좀 챙겨 올게. 여기서 좀 기다려」 그녀가 방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난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냈다. 보지 말라고 하자 호기심이 더 생긴 것이다. 혹시나 해서 방문을 열고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토마토 주스를 만들려는지 열심히 토마토를 씻고 있었다. 나는 됐다 싶어 차분히 일기장을 펼쳐 보았다. 일기장을 넘기다가 날짜 옆에 빨간색펜으로 별표를 해 놓은 것이 눈에 들어 왔다. 그 표시는 그녀가 생리를 시작하는 날을 표시해 두는 암호였다.

199×년 ×월 ×일 ☆

지금 내 연필꽃이에는 식구가 하나 더 늘었다. 또 녹색 펜이다. 나는 그걸 공짜로 얻었다. 아니 나는 그걸 훔쳤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일이 시작되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가끔씩 털 훔치지 않고서는 건달 수 없다. 누가 알까 봐 겁난다. 다시 책자리에 가져다 놓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난다. ……

내게 그것은 아주 신나는 발견이었다. 소연이와 나 사이에 공통 분모가 별로 없었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씩 자신을 맞춰가고 있었다. 좋아하는 음식이나 음악 같은 것들을. 하지만 나는 그런 것이 아닌 다른 무언가. 둘만의 은밀한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던 때였다. 그녀의 일기장을 훔쳐보기 전부터 나 역시 생리 때만 되면 도박이 머리를 쳐들곤 해서 괴로웠던 적이 있었다. 난 일부러 표시 나게 일기장을 서랍에 집어넣었다. 조금 뒤에 그녀가 토마토 주스와 과자를 생반에 반쳐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자기의 생리와 도박 사이에 연결 고리가 있음을 그때껏 모르고 있었다. 그 뒤로 가끔 우리는 공범이 되었다. 공범이라고 말해 놓고 보니 우리가 무슨 큰 도둑같이 여겨지지만, 우리가 훔치는 것은 연필이나 지우개, 혹은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작은 것들이었다.

「너도 생리 시작했어?」

「달마다 정말 귀찮아. 왜 여자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걸까. 억울해」

「보상 심리의 발로라고 하면 어떨까, 오랜만에 한 번 하지 않을래?」 나는 은밀한 미소를 흘리며 그녀에게 말했다. 사실 대학에 들어 온 뒤로는 공범이 되어 일을 했던 적이 없었다.

대형 슈퍼마켓에 들어갔다. 매장을 한바퀴 휘 돌고는 생리대를 들고 카운터에 가서 계산을 마치고 나왔다. 슈퍼마켓을 나와서 우리는 오분쯤 아무 말 없이 걸었다. 그 오분 동안의 짜릿함을 깊이 보지 못한 사람은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모를 것이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마주보고 까르르 웃었다. 나는 핸드백에서 가나초콜릿을, 그녀는 바지 주머니에서 '비블비블'이라는 풍선껌을 꺼냈다. 우리는 다시 웃기 시작했다. 하늘을 보고 웃기도 하고, 빙글빙글 돌면서 웃기도 했다. 길 가던 사람들이 훔쳐볼 것 우리를 바라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손가락을 머리에 대고 빙빙 돌리면서 '재네 미친 거 아냐?'하고 인상을 찡푸리고 지나가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시선에도 신경 쓰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는 내 오피스텔로 거처를 완전히 옮기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생일에 했던, 그런 일을 다시 하진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여전히 남자를 만났고, 나 역시 남자를 만났다.

일년이 흘러 그녀는 이제 스물 한 살이 되었다. 케이크와 약간의 맥주를 사다 놓고 그녀를 기다렸으나 열두 시가 넘어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여섯 시부터 여러 번 호출을 했는데도 통 연락이 없었다. 아무리 늦

방이 되어 버렸다. 놀란 속으로 그녀와 노트를 번갈아 보고 있는데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슬리퍼 끌리는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교실 문을 밀치고 나가는 그녀의 눈치를 보아 가며 나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업을 하고 계시던 영어 선생님은 우리의 태도에 노하셨다. 선생님의 제지에 난 소년의 뒤를 따를 수 없었다. 한참 뒤에 소연이는 다른 급우에게 불려러 교실로 다시 들어왔고, 우리는 선생님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야 했다. 그녀는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지은 씨(?)를 어렵듯이 아는 내가 선생님에게 상황을 이야기했고, 우리는 하루종일 교무실 복도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야 하는 벌을 서야 했다.

그녀가 다시는 나와 말을 안 하면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했으나 이내 그녀는 화를 풀었다. 그 뒤로 나는 그녀가 원손잡이인 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원손잡이라는 것이 그녀에게는 커다란 상처인가 보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것이다. 그 사건 이후 나는 그녀에게 잘 해 주려고 노력했다.

다시 그녀를 바라다보았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수야!」 축축히 젖은 목소리다.

「가끔 국민학교 2학년 때 생각이 나. 하년 초였는데 그때는 키가 작아서 언제나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거든.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는 데,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 말고 나한테로 오는 거야. 그러더니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 지수야, 물 좀 아니 커피 한잔만 다 쿨.

난 커피를 타기 위해 정대에서 일어났다. 나이트 가운을 걸치면서 싱크대로 걸어들었다. 주전자에 물을 받고 있을 때 다시 그녀의 이야기는 시작되었다.

「선생님이 왜 원손으로 글씨를 쓰냐고 물었어. 아니, 물어 본 게 아니라 날 힐난하는 거였다. 빨리 오른손으로 연필을 쥐라고 하는 데, 나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오른손으로는 글씨 못 쓴다고 말했어. 그게 사실이었으니까. 난 단지 그 말을 했을 뿐인 데, '네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디. 나 원! 자식이 원손으로 글씨를 쓰는 데도 가만히 놔두는 부모도 있나. 바르장머리없이 말대답이나 하게 가르치고.' …… 그날 나는 울면서 집에 왔다.

한동안 그녀는 말없이 이불깃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가스 랜지 위에 올려놓은 주전자와 그녀를 번갈아 보며 난 계속 그녀가 다음 이야기를 하기를 기다렸다.

「그 날 이후로 선생님은 나에게 '바른 생활' 교과서를 매일 한 번씩, 그것도 오른손으로 써 오라는 숙제를 냈지만 난 한 번도 해 가지 않았어. 그리고 매일 팔바닥을 맞았어. 처음에는 다섯 대, 그 다음에는 열대. 나중엔 하루에 오십대씩 맞았어. 학년이 바뀔 때마다 그런 비슷한 일을 겪어야 했지만 그 때가 제일 심했던 것 같아. 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했어. 앞으로는 그럴 거고. 누가 뭐라고 하든 말아.

「소연아, 커피 마셔.」 소연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모르게 몇 스푼이나 넣었는지 모를 블랙커피를 소연에게 권하고 나도 같이 마셨다.

「좀 진한데. 오늘은 어쩐지 이렇게 진한 커피를 마시고 싶었어. 내 이런 시절처럼 말야. 지수야, 담배 피워 보고 싶어.

「너 담배 싫어하잖아. 그리고 배워서 좋을 거 없어.

「어떤 맛인지 얼마나 독한지 궁금해서 그래.

「배워서 좋을 것 없단니까. 피워 보라고 할 때는 기겁을 하면서 흥겨보더니.」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담뱃갑에서 두 가지를 꺼내어 그녀에게 한 가지를 주고, 나도 하나 입에 물었다.

「이렇게 빨아들이면 되는 거냐?」 그녀는 그럴 듯한 몸으로 검지와 중지 사이에 많이 피워 본 것처럼 담배를 끼우고, 두 불이 옴뚝 되어 들어갈 정도로 담배 연기를 빨아들이며 내게 물었다.

「음!」 예상하고 있던 반응이었다. 객객거리는 소리를 내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유 있어 보이던 그녀는 정신없이 연기를 입 밖으로 내보내며 재떨이에 담배를 비비고 있었다. 허리가 잘린 담배가 제 몸을 완전히 불사르지 못한 아쉬움 때문인지 가느다랗게 연기를 피워 올리고 있었다. 희무옅한 담배연기가 그녀와 나 사이에 장막을 만들었지만 그리 오래가지는 못 했다.

「아이고, 이런 독한 걸 어떻게 피우나. 난 못 하겠다.」 그녀의 어린 시절만큼 독한지는 몰라도 아무튼 담배 연기 덕분에 그녀는 조금 전 자신이 했던 이야기를 잊은 듯이 보였다. 하루 종일 침울해 있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 때처럼 담배가 고마웠던 적이 없다.

그녀에게 생일 선물로 주었던 백장미가 오피스텔 한쪽 벽을 하얗고 푸른색으로 장식하고 있었다. 소연이가 정성스럽게 드라이틀라워한 장미를 나는 흠뻑한 눈으로 감상하고 있었다. 우리는 하루를 사이에 두고 명리를 시작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생리하는 날은 같은 날짜이거나 하루의 차이를 두고 있었다.

그녀와 나 사이에는 이상한 공동점이 있었다.

고2 때 처음으로 그녀의 집에 놀러 갔을 때의 일이다.

갔었다. 여행을 떠나던 날 내가 녹장을 부리는 바람에 우리가 남원에 도착했을 때는 산너머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서 하늘을 고운 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여차피 산에 오르기는 글렀으니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출발하기로 하고 여관을 잡았다. 짐을 풀어놓고 주린 배도 달랜 겸해서 저녁을 먹으러 나왔다. 이일치일이라고 딸과 섞인 삼계탕을 먹고는, 여관에 들어가기에 이른 시간이라서 호프 집에 들어갔다. 여행을 떠나왔다는 즐거운 기분에 주거나 받거나 하다가 꽤 많은 술을 마셨다.

자정이 조금 넘어서 우리는 여관으로 기어들어 갔다.

「걱정하지 마. 아무렴 내가 널 건드리겠나.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그랬는지 그가 너무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하긴 남자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지켜 준다고 했어.' 경계심을 풀 나는 자리에 누웠다. 그런데 날이 너무 더웠다. 술까지 마신 터라 더욱 그랬다. 날개에 먼지가 잔뜩 낀 선풍기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었으나 별효과가 없었다.

나는 걸옷을 벗었다. 속옷만을 입은 채로 드러누운 나는 여독으로 인해 쉬 잠에 빨리 들어가고 있었다. 어느새 그가 옷을 벗었고, 내 속옷까지 벗겨 놓았는지 술과 잠에 취했던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욕중하고 끈적거리던 몸뚱아리가 나를 덮었던 때부터 기억할 뿐이다. 저항하고 싶지 않았다. 저항한다는 게 우스워 보일 것도 같고 여관에 들어갈 때부터 아니, 그와 여행 계획을 세울 때부터 그와 잠을 자도 켄함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니 말이다.

내가 상상하고 있던 무드 같은 것들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먼지가 푹푹 날리는 허름한 여관방. 수많은 남자가 뒹굴었을 것이 확실한 그래서 누리꺼리하게 색이 변한 시트.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술 냄새와 땀 냄새를 얹치없이 뿜겨 대며 여자를 탐하는 남자. 그리고 술에 취해 아무런 감흥도 떨림도 느껴지 못하는 나. 나는 그가 하는 대로 몸을 맡기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 수많은 여자를 다뤄 본 경력이 확연히 드러나는 그는 익숙한 솜씨로 기계적이라고 해야 할 지, 동물적이라고 해야 할 지 모르겠지만, 나의 몸을 탐했다. 이를 악물고 소리내지는 않았지만 술기운이 확 달아난 정도로 난 아픔을 느껴야 했다. 내가 더 이상 처녀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주려는 듯 다리 사이에 묻어 있던 정액의 불쾌한 끈적거림이 새벽이 다 되어서야 잠들 수 있었던 내가 그날을 기억하는 마지막 느낌이었다. 그 첫 경험에 대해 누군가 나에게 감상문을 쓰라고 한다면 나는 '무척 아팠다.'라는 말 외에는 별로 쓸 말이 없다.

다음 날 나는 평소처럼 걷기 힘들 정도로 많이 아팠다. 천왕봉에 오르자던 계획을 수정하고 뽕사골과 광한루만을 구경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잠지 같은 데서 보았던 오르가즘이란 무엇일까? 나는 불감증에 걸린 여자인가? 그에게 문제가 있나?」 나는 이러저러하게 생각하여 보았다. 첫경험의 기억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때면 그에게 싫다고 할 수도 없어 그 뒤로도 몇 번 잠자리를 같이 하긴 했다. 손으로 생리 날짜를 꼽아 가며 가임 기간을 계산해야 하고 임신할 가능성에 대해 불안해하며 말이다. 그러한 불안에 시달리면서 내가 얻는 것은 무엇이였을까? 한 번도 만족해 본 적이 없었던 그와의 잠자리에서.

남자와의 잠자리에서 느껴 보지 못했던 황홀함을 나는 소연이를 에두하며 경험했다. 여러 남자와 키스해 보았지만 첫 키스를 제외시킨다면 이처럼 가슴이 떨린 적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해가 중천에 뜨자 잠에서 깨어났다. 바닥에 아무렇게나 벗어 놓은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소연이는 부끄러운지 이불깃을 목까지 올리고서 그러나 차분한 목소리로 내게 물었다.

「동성애자의 수가 많을까. 원손잡이의 수가 많을까?」

그녀의 물음에 난 대답할 수 없었다. 자주 그녀는 얼른 대답하기 힘든 질문을 하고, 내가 그녀에게 될 용이 보면 언뜻 이해하기 힘들거나 엉뚱한 대답을 하곤 한다. 가끔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어쩌면 그녀의 이러한 점들이 나로 하여금 그녀의 주위를 서성이게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머릿속으로 헤아려 보았다. 과연 어느 쪽이 더 많을까? 나도 문득 궁금해졌다. 그녀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녀를 바라보았다.

가슴이 아려 오면서 가물거리는 기억이 있다.

그녀가 전학을 오고 일주일도 지난 후에 우리가 찍어 되었던 첫날이었다.

「너 원손잡이야?」 그녀에게 몸을 바짝 붙여 대며 그녀의 원손을 신기해하며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하던 일을 할뿐이었다. 아마 국어 숙제를 하고 있었을 것이나.

「정말 신기하다. 나 원손잡이는 처음 봐. 오른손으로는 글씨 못 써? 한 번 써 봐라. 응!」 굳어진 그녀의 얼굴을 보고도 난 계속 떠돌아다녔다. 생전 처음 보는 원손잡이. 신기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나도 모르게 했던 말인데, 그녀의 얼굴에 경련이 일고 있었다. 그녀는 원손에 있던 볼펜을 오른손으로 옮기더니 숙제를 하고 있던 노트 위에 노트 크기 만한 X자를 그었다. 볼펜은 칼이 되었다. 예씨 해 놓은 숙제가 나 때문에 잉

이었다. 그녀를 행복하게 할 수만 있다면…….

사건지 얼마 되지 않는 그녀의 남자 친구는 그녀에게 흑장미를 선물한 모양이다. 그것도 화려한 무늬포에 당사로 김김이 둘러싸서 꽃을 보라는 건지 포장지를 보라는 건지 분간을 하기 힘든 그런 상태의 꽃다발이었다. 입가에 미소가 흘렀다. 나만큼 그녀의 기호를 잘 아는 예는 아직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꽃에 관해서라면 지나치게 까다로운 그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꽃을 포장하는 것이었다. 나중이야 알았지만 그 바보 같은 남자는 향수도 그녀가 싫어하는 샤넬 No5를 선물한 모양이다. 그녀는 혼란 속에서 종종 환멸을 느낀다고 말했다. 어떤 영화 배우가 잠을 잘 때 잠옷 대신 온몸에 뿌리고 잤다던 샤넬 No5는 그녀가 싫어하는 향수 중의 하나였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도 나는 역시 입가에 미소가 흐르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생일 케익 위에 꽃은 두 개의 초와 케익 옆에 따로 세워 둔 풀빛 양초의 불꽃에 의지한 채, 둘만의 요란하고도 조용한 생일 파티를 시작했다. 소주 한 잔만 먹어도 취하는 그녀는 밖에서 맥주를 마시고 들어 왔다. 포도주를 사왔으나 내가 여러 번 권하자 하는 수 없다면서 마셨다.

그녀의 얼굴이 솟불에 일렁이고 있었다. 한 손으로 포도주 잔을 들고 한 손으로는 탁자를 만지작거리면서 그녀는 솟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두 눈에서 환희의 빛이 떠올랐다. 하지만 세심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알아 보기 힘든 희미한 빛이었다.

「오늘 그 애가 키스해 봤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되게 요염해 보인다, 너.」

술을 먹어서도 밝그스레했지만, 내 말에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포도주로 변해 버렸다.

「바보! 그렇게 남자를 만나면서 아직까지 키스도 못해 봤어?」

수줍은 듯 살짝 미소를 짓던 그녀는 취기가 돌기 시작했는지 눈빛이 초점을 잃어 가고 있었다. 앉은뱅이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앉아 있던 그녀가 내 옆으로 다가왔다.

「머리 좀 기대도 되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는 그녀의 머리카락이 목을 간지럽히기 시작했다. 그녀는 처음 보았을 때처럼 여전히 긴 생머리-그 때보다 조금 짧긴 하지만-이다. 가만히 고개를 돌려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키스하고 싶다. 키스하고 싶다.」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포도주 때문은 아니었다.

「소연아! 괜찮아?」 그녀를 살짝 흔들며 보았다.

아무런 반응이 없다. 「벌써 잠들었나?」

「자니?」

역시 마찬가지다. 「입만 맞추는 건 괜찮을 지도 몰라. 잠들었는데 뭘.」 나는 살며시 그녀의 입술에 내 입술을 갖다 대었다. 포도주 냄새가 풍겨 나왔다.

「키스해 줘.」

잠들 줄 알았던 그녀가 눈을 뜨고는 나를 바라보았다. 처음 그녀의 입술을 보았던 때를 떠올렸다. 난 그때부터 그녀와의 키스를 원했음지도 모른다. 그게 사실이 아닐지라도 난 오랫동안 그녀와의 키스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걸 그 순간에 깨달았다. 나는 옷을 벗었다. 소연이가 키스할 동안 감고 있던 눈을 뜨고는, 숨에 취해 몽롱해진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침대에 가서 누울래?」 내가 그녀의 옷을 벗기려 할 때였다.

「솟불을 꺼줘.」

미세하게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옷을 벗겨 내려갔다. 심호흡을 한 번하고 그녀를 가리고 있던 마지막 속옷, 브리프를 벗겼다. 처음으로 그녀의 알몸을 보는 순간이었다. 함께 목욕하러 가자고 해도 때면 거절하고, 내 앞에서 절대로 옷을 갈아입지 않는 그녀였다. 여름에 너무 더워서 내가 속옷만 입고 있으면 고개를 돌리며 아무리 친구 사이라도 속옷 차림으로 있는 건 보기가 민망하다며 나무라던 그녀였다. 나는 흥분되었다. 잠들 줄 모르는 서울의 밤은 블라인드 사이로 빛줄기를 흘려 보내며 그녀의 벗은 몸을 감싸고 있었다. 그 순간을 위해 그녀는 자신의 벗은 몸을 보여주지 않았음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입안 가득 침이 고이는 것과는 달리 입술은 바짝바짝 마르고 있었다. 그녀는 약간 가냘픈 몸매를 가지고 있었지만 등에서 허리는 것과는 달리 입술은 바짝바짝 마르고 있었다. 그녀는 약간 가냘픈 몸매를 가지고 있었지만 등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다리로 이어지는 선의 아름다움에서 나는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살며시 그녀를 안았다. 내 피부에 와 닿았던 그녀의 살결은 목련 꽃잎을 만질 때의 느낌을 떠오르게 했다. 부드러운 자꾸만 만지고 싶은…….

그녀와 키스하던 나의 입술은 그녀의 목으로 옮겨갔다. 그녀는 내가 이끄는 대로 가만히 있을 뿐이었다. 내 입술은 다시 그녀의 목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그녀의 목련 같은 피부를 어루만지면서 땀 처음으로 섰던 기억을 떠올렸다.

대학생이 되고 처음으로 맞이한 여름 방학이었다. 남자 친구와 둘이서 3박 4일 예정으로 지리산에 놀러

얼거리면서 그에게는 보이지 않도록 하면서 그를 노려보았다. 「그런데 난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그를 헐뜯는 자격이 있나?」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소연이는 화장하지도 않고 외출복을 입은 채로 돌아다녔었다. 보다. 어디를 어떻게 돌아다닌 것인지 알 수 없었으나,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이 가득 고여 있었다.

「말도 없이 나가서 지금까지 어디서 뭘하고 돌아다녔어! 걱정했잖아.」

시계를 보니 일한 시였다. 「그와 그렇게 오래 있었나?」

「민규 만났어.」 여관에 갔었다는 얘기는 물론 하지 않았다.

「소연아! 너 지금까지 남자하고 연애를 해보긴 했니?」

긴 침묵이 흘렀다.

「나 사실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민규한테 들었어.」

「미안해. 그런 얘기는 하고 다니는 게 아닌데.」 소연이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고 있었다.

「이 바보야! 나도 너 사랑해. 누구에게도 뽀끼고 싶지 않을 만큼. 난 내 첫사랑이야. 하지만…….」

소연이의 키스에 나는 뒷말을 잊지 못 했다. 소연이의 뜨거운 눈물이 내 뺨을 적셨다. 전신이 마구 떨리고 있었다. 조금만 더 그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난 자제력을 잃을 것 만 같았다.

「소연아,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아마도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될 것 같아.」

「언제 하는 데.」

「졸업하고 나서 하겠지. 아마도.」

「그 사람 정말 사랑해?」

그녀는 나를 계속 바라다보지만 한다. 그녀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다.

「조금 전에 난 사랑한다고 말했잖아.」

「너도 사랑하지만, 너보다 그 사람을 약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첫사랑은 이루어지기 힘든 거라더니 그 말이 맞나 봐.」

「…… 우리가 같은 여자라서 가 아니라?」

「아니야, 이 바보야! 우리 서로에게 첫사랑이기 때문이야.」 난 그녀를 속이고 있었다. 사실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 세상에서 누군가를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 반만큼이라도 사랑했다면 세상이 나에게 강요한 뿌리 깊은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지도 모른다.

「너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 난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 아까 한 말 거짓말이지. 그렇지?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만 행복한 거라고 늘 말했었잖아. 난 거짓말쟁이야. 난 저 백장미가 내가 나에게 청혼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벽에 매달려 있던 마른 백장미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히스테리를 일으키고 있었다. 그녀와 사 년을 사귀면서 난 정확히 두 번 그녀가 화내는 것을 보았다. 원손잡이의 이야기를 꺼냈을 때와 지금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그녀가 말했던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의 모습이 섬광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아니, 그 사람은 선생님이 아니다. 소연이에게 오른손으로 연필을 쥐라고 강요하는 사람은 바로 내 얼굴을 하고 있다. 나는 세차게 머리를 도리질해 본다. 증오에 찬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녀와 그녀에게 억지를 부리는 내 모습.

하마터면 나는 그녀에게 반드시 오른손으로 글씨를 써야 한다고 강요했던 선생님이 될 뻔하였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줄 뻔한 것이다. 아찔했다.

나는 고개를 숙여 바닥에 내팽개쳐진 백장미를 집어들었다. 그녀에게 그것을 내밀고 나는 모든 걸 그녀의 결정에 맡겼다. 그녀가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일 분 남짓한 시간을 나는 일년을 산 것처럼 느꼈다.

오월의 푸른 들판 위에서 눈부시게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손에는 백장미로 만든 부케를 들고 있는 두 여자의 모습을 그려본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될 것이다. 하객들은 모두 진실로 우리의 결혼을 축하해 주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눈부신 햇살 아래 행복하게 웃고 있는 오월의 두 신부들…….

권의 책자를 들고 들어왔다. 여류 문인들은 서로의 산에 술을 따르며, 그 책자를 빼앗듯이 받아들였다. 나에게도 한 권이 주어졌고, 첫장에는 '마도로스와 멋진 항해들'이라는 무슨 해군 홍보 영화같은 한 글귀가 적혀있었다. 다음 장에는 하얀 양복에 무스를 바른 눈빛이 날카로운 남자의 사진이 있었다. 뺨갈라는 생각이 들어 다음 장으로 넘겼다. 또 다음 장, 다음 장으로 넘겨 보았지만 별로 마음을 끄는 것이 없었다. 한 장 한 장 의미없이 넘기던 나의 손에 미미라도 온 듯 진저리가 저 지는 사진을 보았다. 책자에서 '아버지'를 보았던 것이다. 짧은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하얀 이빨이 보이도록 웃고는 있었지만, 그 「각진 턱」만은 숨기지 못하고 나에게 걸린 것이다. 순간 나는 25년전의 그 때로 돌아가 있었다.

— 밤상이 들어왔다. 고소한 계란의 냄새가 나를 유혹한다. 오늘도 역시 난 그 밀바닥의 찌꺼기나 부엌에서 할게 될 줄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기내에 아랫목의 뺨상에 눈을 돌린다. 우리집은 식사때에 항상 뺨상이 두 개로 차려진다. 아랫목에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다리병신인 우리 오빠가 먹는 뺨상과 엄마와 내가 먹는 윗목 뺨상이 그것이다. 할아버지가 계시는 아랫목의 뺨상에는 당연히 끼니 때마다 고기는 아니더라도 계란 하나라도 올라갔고, 뺨도 흰 쌀밥은 아니지만 쌀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밥이 소복하게 놓여졌고, 엄마와 나의 뺨상에는 김치와 나물, 그리고 간장이 전부인 보리밥 뺨상, 상이라고 하기에는 무슨 거창한 전부에 몇번은 장식한 군인의 모양새처럼 다리 두 개가 나란히 기워져 있었다. 항상 배가 고팠던 나에게 할아버지는 하루 빨리 죽어야만 하는 존재였고, 알콜중독자인 아버지는 집안의 행복을 깨는 악마였다. 어릴 적 잠에서 시끄러운 소리에 잠이 깨어서 난 보았다. 술이 잔뜩 취한 아버지가 엄마를 식칼로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는 모습을... 그때의 아버지는 엄마를 무참히 밟고 밟았으며 그것이 부족한 듯 엄마의 옷을 찢어대듯 밟고,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강간을 했다. 나는 너무도 무서워서 이불 속에서 껴안고 눈만 내민 채, 말리지도 못하고 오돌오돌 떨기만 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아버지는 몇 일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신 교수는 골랐어. 우리 아까부터 다 고르고 기다리고 있었어. 처음이라고 너무 고르지 말고 대강 골라줘. 어디 한 두번을 건가." 여류 문인들의 소리에 나는 현실로 돌아왔다. "아직, 조금만 기다려주면..." 나는 빠르게 나머지 장을 넘겼다. 얼핏 지나쳤다가 다시 한 장을 펼쳤다. 거기에는 특별하게 잘 생기거나 매력 있어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이런 곳과 어울리지도 않는 내 강의를 듣는 학생과 같은 사내의 사진이 있었고, 나는 그를 부르기로 했다. 잠시 후에 사내들이 들어왔고, 우리들의 술자리는 활기를 찾아갔다. 술자리가 무르익어 갈 때, 황 작가의 파트너가 술상 위로 올라섰다. 옷을 벗기 시작했다. 조금씩 드러나는 구리빛으로 잘 그을린 그의 몸은 40여년 동안 내 속에 감추어져 있던 또 다른 나를 폭발시켰다. 지금의 나는 내가 아니요, 내가 아닌 것도 아닌 아찔한 황홀함을 즐기고 싶었다.

철수라고 소개한 내 파트너와 술을 서로 나누다보니, 어느새 평소 주량보다 넘어시고 느꼈고, 오늘은 그냥 취하게 내버려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다. 황 작가의 파트너는 자리로 돌아가고, 이 작가는 벌써 성하게 취한 듯 구석에서 오바이트를 하고, 남궁 시인은 손을 파트너의 바지속으로 집어 넣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다. 그 때 나는 이들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철수의 손을 잡고 <마도로스>를 무작정 나왔다.

우리는 근처의 호텔 키치홀로 들어갔다. 종업원이 커피를 가져오는 동안 말이 없이 바라보는 동안 배시시한 웃음이 터졌다. 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남들은 우리를 사이좋은 모자간이나 혹은 남매간으로 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철수는 왜 이런 일을 하지?"

"사실은 저도 한 때는 야망있는 철학도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더군요. 지방대학 출신이라 웬만한 회사에는 명함도 내밀지 못하고, 그렇다고 배운거라곤 오직 지식을 팔아먹는 것밖에 없는데, 한 달, 두 달 시간을 보내다 보니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더군요. 친구들은 자그마한 회사라도 들어가서 섹타일을 메고 출근을 하거나 새로운 학문을 배우려고 대학원 진학을 했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나였지만 역시 젊은이인지라 좋은 옷도 입고 싶고, 멋진 자동차에 이쁜 여자친구도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신문에 실린 광고를 보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철수는 이 직업이 마음에 들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하지만 보수도 괜찮고 나름대로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그럭저럭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처음이신가요?"

"아니! 내가 그렇게 순진해 보이냐? 이래봐도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이라 할 수 있지."

이런 대화들이 오간 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객실로 올라갔다.

술에 취한 탓인지 성에 대한 욕구가 치밀어 오름을 느꼈다. 그녀는 갑자기 그 동안 그녀 자신을 지배하고 있던 윤리의식이 가식적인 것인양 쓰레기통으로 구겨 쳐 넣고는 그에게로 달려들었다. 마치 맹수들이 사냥감을 보고는 혼신의 힘을 다해 사냥을 하듯이 그를 하나하나 벗겨 내고 알몸으로 만들었다. 철수의 목에는 금 목걸이가 반짝였다. 그리고는 마치 폭포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맹렬함으로 그를 에워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의 성기가 꿈틀대기 시작했고 그녀는 더욱 더 에무를 했다. 이윽고 그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듯이 그녀를 침대에 눕혔고 그녀의 옷을 거침없이 다 벗기려고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그의 따귀를 때렸고 그녀가 그를 놓치고 그의 위로 올라갔다. 그 자세는 흔히 말을 타는 자세와 매우 흡사했다. 그의 목은 그녀의 고삐였고 그의 성기는 이미 그의 것이 아닌 그녀의 포근한 안장에 불과했다. 말에 재워를 가하듯이 그의 몸을 계속 졸라대며 끝없는 황야를 내달리려고 하는 것 같았다. 철수는 숨이 막혔다. 그녀의 손아귀의 힘 때문이라기 보다는 남자의 자존심이 걸식사 한 것 같았다. 그는 몸을 일으켜 그녀를 내려놓았다. 철수에게서 떨어진 그녀는 일어나서 테이블위에 놓인 지갑을 철수에게 던지며 "넌 오늘은 내 것이야!"라고 소리쳤고 철수는 그녀의 목소리 보다는 앞에 떨어진 지갑에 시선이 멈추었다. 그리고는 철수를 개처럼 그녀의 가랑이 사이를 기게한 후 다시 침대로 올라가 누워서 "이제는 니 마음대로 해 봐" 그러자 철수는 그녀의 뺨안 다리를 넓게 벌린 후 그의 성기를 사정없이 집어넣었다. 순간 그녀는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짜릿함을 느꼈다. 그것을 아픔이라고 해야 할 지 황홀함이라고 해야 할 지 몰랐다. 조금 후에는 이런 느낌마저 사라지고 둘은 완전한 합일체가 되었다. 이날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라는 사실을 잊을 수 있었다.

화창한 봄날의 오후 연구실에 나는 제자들과 면담을 하고 있었다.

똑똑-

"네-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신 교수님."

나는 순간 섬뜩했다. 들어온 낯선 사내는 철수였다.

"어머 저 오빠 누구예요?"

"어-어- 그러니까 말이지! 어 그렇지 먼 친척 조카야!"

"그때 수첩을 놓고 가셨더군요."

"그랬었나. 지금 바쁘니 문 밖에서 기다리지."

"어머, 교수님 오랜만에 만났을텐데 왜 그렇게 막대하세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철수는 나가 있어."

철수가 주섬주섬 나가려고 하자,

"교수님 그러지 마시고 같이 앉아서 차라도 한잔하시지 그러세요. 저희는 그만 가보겠습니다. 그럼... 대화를 나누세요."

제자들이 빠져나간 연구실은 우리 둘만의 공간이 되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빛은 철수의 금 목걸이를 빛나게 하였다. 순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리고 나는 그날의 황홀감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었다. 철수의 손을 끌어 내 가슴에 대고, 철수의 몸을 탐닉하기 시작했다. 나는 철수의 입술을 빼앗고, 좀더 깊은 것을 원했다. 나의 신성한 연구실 이곳은 적당한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밖으로 나와 서로를 채우기 위한 곳으로 갔다.

"부인 진정하세요. 부인은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산모와 아기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통이 시작되면 침대 머리맡에 있는 벨을 누르십시오."

나는 이제 산부인과 침대에 누워있다. 그동안 철수와의 근 1년여간의 관계에 대한 보답이다. 왜 여자는 항상 이렇게 불편한 상황에 처해야 하는 지 알 수 없다. 그 옛날 엄마는 아버지에게 매일 매달고 할아버지를 죽이라고 봉양했지만 돌아온 것은 그 흑독한 삶이 준 병든 몸통아리만 남지 않았던가. 그리고 엄마보다 더 배우고 더 똑똑한 나 역시 그런 삶을 답습하고 있는 건 어쩌면 아이러니가 아닐까. 세상이란 참 억울하다. 만일 신이 정말로 평등하다면 이렇게까지 현실을 잔인하게 만든 걸 어떻게 설명할 지 묻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아마 신은 모두 남성의 성기를 가진 신 뿐일 것이다. 갑자기 진통이 시작되고 참을 수 없는 아픔

에 정신이 아득해진다.

"축하드립니다. 아이는 건강합니다."

이 때 철수가 들어와 내 옆에 와서 손을 꼭 잡고 "수고했어요"

순간 나는 무엇보다도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다.

"어자애야, 남자애야"

"아주 튼튼하고 잘 생긴 남자애입니다."

"죽여버려"

'나에게 장난감은 너 하나로 족해'라는 말이 신 교수의 입 속에서 뱀돌았고, 그녀는 정신을 놓아 버렸다.

3. 무기여 잘있거라!

한 여자가 다섯번의 경험을 하고 배를 타고 물속으로 완전하게 떠나 버렸다.

첫번째 경험, 대학 다닐때 잔디밭에 앉아 있다 담배 꺼냈어. 불을 붙이고, 한모금 빨자 황홀한 기분 느꼈던거야. 아~그런데 웬 남자가 담배 핀다고 화를 냈었대. 여잔 - 그냥 묵살했었지~.남잔 달려와 담배 버리고 버럭 화를 냈었고, 이 여자는 코피 나게 맞았더라.

이 여자의 두번째는 술을 마시고 외박하고 들어갔다 쌍코피 났었던거야.

세번째 경험, 사회 나와서 대기업의 비서로 취직 했더라. 여잔 열심히 일을 했었고, 회식 자리에 한번 나가보았지. 아~그런데 상사 한명 술병 들고 옆에 앉아서 술 시중을 부탁했지. 여잔, 열받아 술상 옆있더라.

여자로 태어나 살아가는 게 도대체 무슨 죄냐고?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느냐고?

이 여자의 네번째는 집에 갈려고 만원버스 올라탔다 성주행 당했던거야.

이 여자는 여성 단체 들어가 여성해방 외쳤어. 여성 해방 혼자 하는게 아냐. 남자 같이 하는거라고.

아 그녀는 결혼을 했고 애도 낳고 행복했는데 남편이 문제 있었대.

결혼 초기엔 여자 하는 일 이해도 해줬는데 이제 와서 날라차기 웬말이야.

의처중에 시달리는 남편이 밤만되면 구타하고 관계를 요구하잖아. 애들 땀에 모든 아픔 버텼었는데 그녀는 힘든 세상이 싫어 세상을 등졌던거야.

하늘 높이 이 한마디 남겨 놓고서 아주 멀리 떠나갔어 무기들이라 잘 있으라고.

4. 못난 선배

오늘 선배가 못났구나

술 한잔을 핑계삼아

참으로 못난 모습을 보였구나

남자들이란 으레

술자리에선 그리해야 한다고 생각했구나

정지, 강제, 사회, 문화를

안주삼아 예술로

예술에서 여자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구나

하지만, 못난 남자 선배들 틈에서

하루지나 안주감이 되버린

홀로 여성이었기에 뉘 슬펐구나

오늘 못난 선배들은

여자를 안주삼아

술 한잔에 취해버렸지만

너는 오늘 못난 선배들의

말을 되씹으며

그깃 술 몇 잔 줌으로 취하지 않았구나

진정 어머니는 여성이라던

말많은 선배의

머리통을 박살내었구나

5. 방앗간집 딸

방앗간집 딸 너무나 이뻐 온동네아 세끼들 걸걸싸지

방앗간집 딸 너무나 착해 온동네아 저씨들 그뉘 뉘보네

할머니도 그뉘만 보면 절루를 하 게 되지 그뉘 매력에

할아버지도 그뉘만 보면 윤기가 왕성해져 시도해 보네

하지만 이제 물건너 갔어 보석방아 돌네이 그뉘 뉘꼐

제2회 성문화상 현상공모전 찬조 작품

이름을 밝히기 싫어하는 동악의 4학년 학우의 작품들입니다.

1.남자들

그들도 너무 쉽게
내게 고해성사를 한다.

그들이 가진 탐욕스런 눈빛
불품없는 육체
달아 빠진 주량과
침을 흘리는 거추장스러운
그 무엇을

마치 고해성사를
지배의 도구로 삼겠다는 듯이
내 그림자를 밟지만

기다려 주지 않는
지하철 문처럼 닫아버린다

그것을 알기에
나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근질긴 나의 침묵은
새벽 전화벨 소리처럼 그들을 불안하게 했다

2.실연이라고 하는 진단서

임신한 여자를 보면 켈리 죽이고 싶던 시절이 있었다

전신마취를 준비해 온 사랑
사랑이 떠나가는 그날 눈물대신 정밀검사를 받는다 그녀도 태어날 때부터 울었으리라 밤마다 주
사바늘에서 가늘게 터져나오는 실연은 진통제로 누그러지지 않고 항생제로 억겨워진 사랑은 목사
님 기도처럼 믿을 수 없다

제온계를 입에 물며 막대사탕을 좋아하는 어린애를 생각한다
백의의 천사가 날아와 눈물을 찾아준다
뚝,
뚝,
뚝,

'순결해야 함'
흰 침대 시트에서 포르말린 냄새가 난다
는 기억.....

눈감은 수술자국
누군가 눈감아 주겠다
약속하리라

신경안정제가 밥알처럼 느껴질 때
아무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는다

제2회 '심정회실' 원정출발길 관조 기록

제2회 '심정회실' 원정출발길 관조 기록

원정출발길 관조 기록

원정출발길 관조 기록

원정출발길 관조 기록

원정출발길 관조 기록

원정출발길 관조 기록

원정출발길 관조 기록

원정출발길 관조 기록

원정출발길 관조 기록